



세미나 발표자료집

2017. 5. 18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목요일 14:00~17:30



14:00 - 14:10	개회선언	임유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장
	축사	최맹식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제1부 주제발표			
14:10 - 14:35	주제발표1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조성과정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4:35 - 15:05	주제발표2	유럽의 적층된 역사와 현대건축의 공존 이관석	경희대학교 교수
15:05 - 15:35	주제발표3	역사도시 서울에서 현대건축하기 민현준	홍익대학교 교수
15:35 - 15:55	주제발표4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강성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대표
15:55 - 16:10	휴식		
제2부 종합토론			
16:10 - 17:30	토론	좌장 한필원	한남대학교
	토론자	강현숙	동국대학교
		김윤근	경주문화원
		이종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최영기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김성배	문화재청
		서동철	서울신문
		최무현	경주대학교
		현택수	경일대학교
17:30	폐회		



1. [주제발표 1]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조성과정 5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 [주제발표 2]
유럽의 적층된 역사와 현대건축의 공존 35
이관석(경희대학교 교수)

3. [주제발표 3]
역사도시 서울에서 현대건축하기 53
민현준(홍익대학교 교수)

4. [주제발표 4]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65
강성원(건축사사무소 강희재 대표)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조성과정

김 상 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조성 과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a u r i

목 차

I.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2. 업무 양해각서 체결
3. 기관별 역할 설정

II. 기본계획 수립

1. 사업의 개요
2. 기본구상
3. 건축 및 전시기획
4. 운영계획
5.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안 제시
6. 사업타당성 검토

III. 설계 공모

1. 추진 경위
2. 설계 공모 개요
3. 설계 지침 : 기본 방향 및 주의점
4. 제안과제
5. 설계공모 추진 과정
6. 당선안

IV. 설계 진행

1. 주요 일정

I. 추진 개요

(a u r i

I. 추진 개요

추진 배경

1.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품격 향상 노력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노력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건축도시공간정책의 지적 토대를 제공하고 지원
2. 건축도시공간연구의 선도자로서 참여주체들의 창조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 수행

■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운영

1. 공공기관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건축의 공공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2.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조성 and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건축문화 진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3.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

(a u r i

I. 추진 개요

추진 배경

2.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조성 지원의 배경

■ 문화재 지역 내 공공건축물의 상징성 제고

1. 오랜 발굴조사로 인해 생활에 영향을 받을 시민들에게 경주 월성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지역의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거점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필요
2. 출토된 주요 유물을 보존, 전시하고 방문객들에게 신라 왕경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월성발굴조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자료관 및 유물전시관이 필요
3. 문화재 중심의 경관을 형성하면서도 기능과 디자인에 충실한 공공건축물 필요
4. 문화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비항구적인 시설 필요

■ 문화재와 공존하는 새로운 기능의 공공건축물 제안

1. 경주월성 발굴조사현장과 관련된 새로운 콘텐츠 개발, 주변 문화재와 연계
2. 문화재 발굴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학습할 수 있는 교육·홍보시설
3. 학술연구를 주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는 발굴조사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물 수장·정리시설, 쾌적한 환경의 연구 시설

I. 추진 개요

업무 양해각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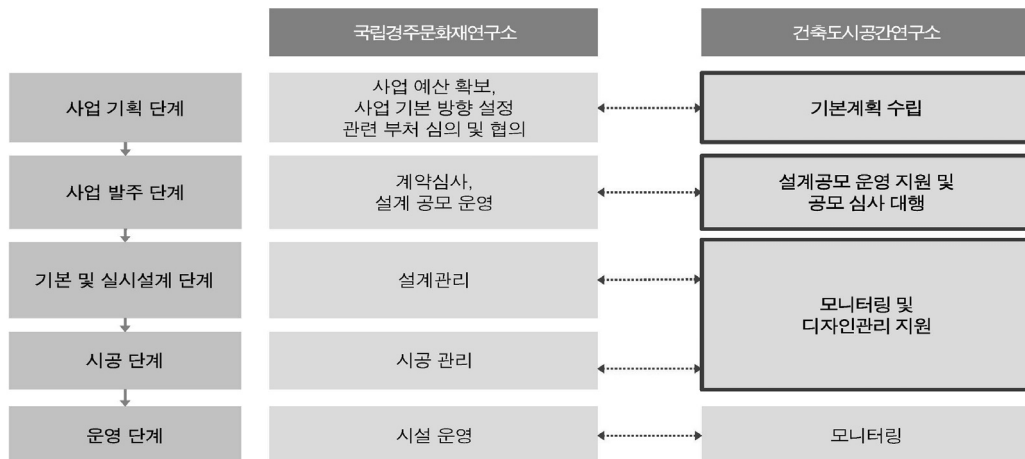
■ 선도적 공공건축 조성 모델 마련 및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양해각서 체결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의 합리적인 건립과 체계적인 디자인관리 체계 마련, 건축물의 품격 향상 등을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

<p>【주최】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p> <p>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중대문화유산개발사업 차별화, 유물 보존·연구, 공공건축, 조성요령을 지원하고,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p> <p>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의 합리적인 건립과 체계적인 디자인관리 체계 마련, 건축물의 품격 향상 등을 위해 상호 교류,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기본원칙 본 기관은 상호 협력하에 있어 상대 기관의 해당 구상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기한다. 가. 양측기관의 발주는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의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 계획서, 용역 계획서, 입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조경계획, 유물 보존을 위한 건축물의 관리계획, 구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나. 본 기관은 유물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의 관리계획, 구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제1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업무 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것.</p> <p>제3조 협력방안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가. 사업추진단계 구축 및 계획·설계·시공 단계의 관리·지원 나. 연구·연구·개발·교육·지원 다. 사업단별 모니터링 및 홍보 지원</p>	<p>【주최】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p> <p>제4조 협력 사항 본 기관은 상대 기관의 발주에 따라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협력 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기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p> <p>제5조 비밀유지 본 기관은 양측기관을 통하여 인출한 상대기관의 정보·내용이나 자료,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기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p> <p>제6조 조항수정 및 폐지 본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으며 본 양해각서 폐지(또는 미시행)나 본 양해각서 폐지(또는 미시행)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기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p> <p>제7조 협력방안 본 기관은 상호 협력하에 있어 상대 기관의 해당 구상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기한다. 가. 양측기관의 발주는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의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 계획서, 용역 계획서, 입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조경계획, 유물 보존을 위한 건축물의 관리계획, 구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나. 본 기관은 유물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의 관리계획, 구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제1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업무 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것.</p> <p>2015년 11월 18일</p> <p>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김대익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 심영섭</p>
--	---

기관별 역할 설정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역할



II.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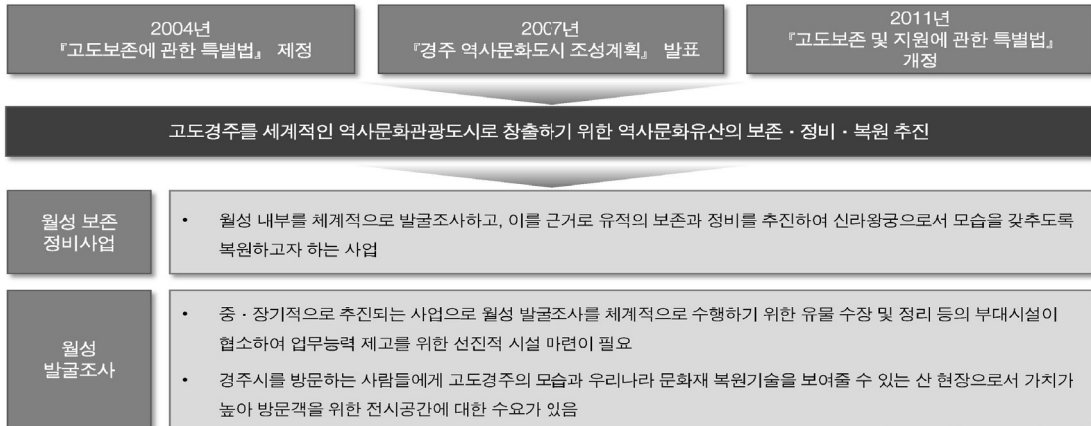
II. 기본계획 수립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계획 수립연구

2.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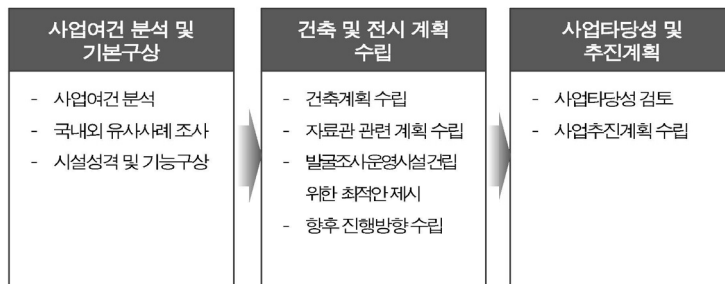
과업의 개요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월성 발굴조사를 위한 임시 유물 수장·정리공간과 발굴현황을 방문객에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전시공간 마련을 위해, 조사 운영시설 건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과업기간 : 2015. 3.19.~ 2015. 8.15 (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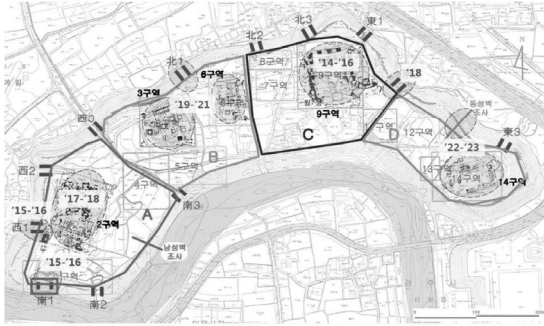


(경주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5)

기본구상

1. 상위계획 분석

■ 경주 월성보존정비사업



〈경주 월성 내 주요 유구 조사계획〉

*자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도	세 부 조 사 계 획
2014~2016	- C지구 시굴조사 - 9구역 건물지 및 추정 연지 발굴조사 - 서문지(월성교 연결 추정) 발굴조사 - 남성벽(일제강점기 제토구간) 발굴조사
2017~2018	- A지구 2구역 건물지 발굴조사 - 집수시설 발굴조사 - 연지 발굴조사 - 동문지 발굴조사

〈경주 월성 내부 조사 제 1단계 계획〉

연도	세 부 조 사 계 획
2019~2021	- B지구 3·6구역 발굴조사 - 북문지 발굴조사 - 월성 내부 도로유구 확인조사
2022~2023	- D지구 14구역 발굴조사 - 동성벽 발굴조사 - 월성 내부 도로유구 확인조사

〈경주 월성 내부 조사 제 2단계 계획〉

기본구상

2. 관련 법 · 제도 분석

- 유적지 내 건물 신축을 위한 문화재보존 관련 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5조(개발사업의 계획·시행자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5조(허가사항), 제36조(허가기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문화재 관련 건축 및 공공건축 디자인 관련 지침

- 『경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건축 디자인 지침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문화재청 예규 제112호

- 지역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관련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 『문화재청훈령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설립과 운영)

기본구상

3. 주변 현황

■ 건립입지 분석

- 경주월성 주변현황



〈경주 월성주변 관광동선 및 주요 월성 조망점〉

- 경주 월성은 도심과 근접해 있는 대동원에서 시작하여 칠성대, 계림, 석빙고, 동궁과 월지, 경주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주 관광동선의 중심**에 위치함
- 2017년 완공될 월정교가 개방되면 월정교에서 시작 또는 연결되는 동선이 확장되어 월성을 중심으로 하는 **왕경지구 관광동선**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됨
- 월성을 통과하는 관광동선이 주요지점들(칠성대, 계림, 석빙고, 동궁과 월지, 박물관 네거리, 월정교 등)에서 **월성조망점**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월성 발굴정비와 연계된 주요 **역사경관 전망지점**으로의 잠재력이 높음

기본구상

4.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사례분석 기본방향

- 유적지 내 또는 근접하게 위치하여 유물을 수장, 전시하고 연구 하는 유적 홍보관/전시관/박물관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
- 그 외 장기간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장소의 역사 및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임시 홍보관을 포함함
- 건축개요 및 운영주체, 연계프로그램, 유적지와의 위치관계, 전시기획 등을 분석하여 건축, 전시계획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국외 사례의 경우 정확한 건축개요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시관 건축계획 보다는 운영 프로그램 및 유적지 활용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

기본구상

4.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유사사례 및 시사점

	국 내 사 례	국 외 사 례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화성홍보관 청계천 문화관 진곡리선사박물관 회암사지 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정림사지 박물관 활룡사 연구센터 대가야 역사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시노가리 유적공원(일본) 헤이조공 유적공원(일본) 대명궁 국가유적지 공원(중국) 칼크리제 전정박물관(독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 정비가 완료된 후 유적의 보존을 기본취지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박물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당지역의 정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대부분의 사례들이 유적지의 도입부에 위치하여 유물을 수장·전시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며, 전시관의 현장성을 강조하는 전시 내용과 기법으로 관람객들로 하여금 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전체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의 발굴조사와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행된 복원·정비의 한 수단으로써 전시관 시설을 건립하여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음 복원에 대한 고증 및 출토 유물에 한계가 있는 경우, 모형 및 디지털 영상 등의 시각적인 전시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을 만족시키고 유적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극대화 하고 있음 지역주민강화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유적보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기본구상

4.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시사점 적용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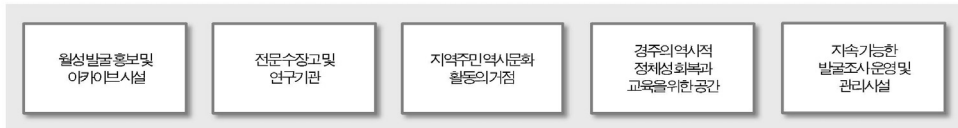
- 대부분의 사례들이 발굴정비가 완료된 후 전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반해,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 시설은 발굴조사연구와 함께 운영됨으로 복합적인 기능구상과 진행성과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함
- 건립지는 기존의 임시조사단사무실의 위치와 월성과 주변 문화재 사이의 관람객 동선을 고려하여 발굴조사연구의 효율성과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하여야 함
- 본 시설은 경주월성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된 시설이나 주변에 산재하여 있는 많은 문화재와 유사 시설 내의 전시, 교육 콘텐츠, 그리고 지역 축제 및 행사와의 관계성을 검토하여 차별화된 내용 및 방식을 고려하여야 함
- 장기간 지속되는 발굴조사와 이와 더불어 진행되는 역사도시환경개선 계획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여 지역문화기반시설로서의 정체성을 높여야 함

II. 기본계획 수립

기본구상

5. 시설성격 및 기능구상

■ 시설성격



■ 기능구상



기본구상

5. 시설성격 및 기능구상

■ 규모검토

- 현재 임시발굴 조사단 사무실 현황



	구분	면적
조사단 사무실 (연구, 사무, 회의 공간)	4 X 9 컨테이너 : 3동	108m ²
	4 X 8 컨테이너 : 1동	32m ²
	6 X 9 컨테이너 : 1동	54m ²
	3 X 5 컨테이너 : 1동	15m ²
	6 X 9 컨테이너 : 3동(현장사무실)	(162m ²)
보존처리실	경주시 마동 출토유물보관동 사용	-
임시 수장고	9 X 12 컨테이너 : 1동	108m ²
화장실		12m ²
총면적		329(491)m ²

- 현재 임시조사단 사무실은 연구원 약 30여명(작업인부100여명 제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연구시설 규모검토에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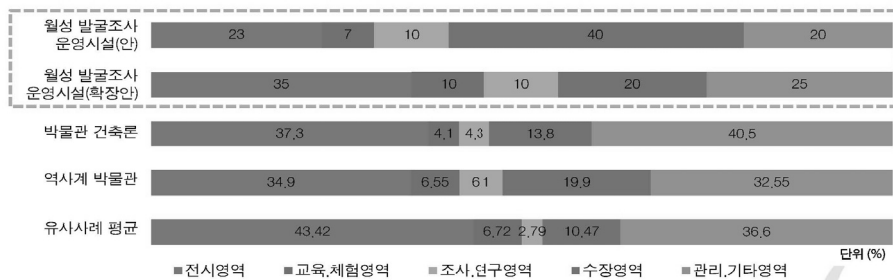
기본구상

5. 시설성격 및 기능구상

■ 유사사례 비교에 따른 규모산정

- 유사사례와 대지 면적 및 필요 기능 등을 고려하면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의 규모를 약 3000m²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나 초기단계에서 현재 임시발굴조사단사무실을 함께 활용하며 유물정리·수장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기초적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수장고와 자료관 기능을 수용하는 1,000m²~2,000m²의 규모로 검토함

■ 세부영역별 면적계획



기본구상

5. 시설성격 및 기능구상

■ 세부영역별 면적계획

공간 영역	세부기능	기존시설활용안 (연면적1800㎡ 1층 규모)	확장안 (연면적3000㎡ 2층 규모)
전시영역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관 등	414m ²	750m ²
교육·체험영역	강당, 세미나실, 체험실 등	126m ²	300m ²
조사·연구영역	학예실, 자료실, 회의실 등	기존시설활용 180m ²	600m ²
	소장실, 학예실, 대회의실 등		
수장영역	수장고, 보존처리실, 정리실, 사진실, 관리실 등	720m ²	600m ²
관리·기타영역	안내데스크, 휴게실, 로비 및 공용시설 등	360m ²	750m ²

II. 기본계획 수립

기본구상

6. 입후보지분석

■ 전체 후보지



구분	대지면적	총 연면적 (단층최대)	총 연면적 (복층최대)
후보지A	약 9,000m ²	약 1,800m ²	약 3,600m ²
후보지B	약 7,000m ²	약 1,400m ²	약 2,800m ²
후보지C	약 9,000m ²	약 1,800m ²	약 3,600m ²
후보지D	약 7,500m ²	약 1,500m ²	약 3,000m ²
후보지E	약 6,600m ²	약 1,320m ²	약 2,640m ²
후보지F	약 9,000m ²	약 1,800m ²	약 3,600m ²

공통사항

- 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용적률 : 6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층수제한 : 2층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특기사항

-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II. 기본계획 수립

기본구상

6. 입후보지분석

후보지 평가 기준 및 순위(만)

◎상 ○중 □하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후보지 A	후보지 B	후보지 C	후보지 D	후보지 E	후보지 F
대지환경 (20%)	대지특성 (10%)	◎	○	◎	○	◎	○
	입지성 (10%)	□	○	○	◎	□	◎
접근성 (20%)	차량접근성 (10%)	◎	◎	□	◎	◎	◎
	대중교통 및 보행접근성 (10%)	□	○	◎	◎	□	○
연계성 (20%)	발굴지와의 연계성 (10%)	□	○	◎	○	○	3
	주변문화재및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5%)	□	○	○	◎	○	◎
	주변 편의시설과의 연계성 (5%)	○	□	□	◎	□	○
환경성 (20%)	발굴지와의 경관 및 조망 (10%)	□	□	◎	◎	◎	◎
	주변 경관요소 (10%)	○	◎	◎	○	◎	○
시행 가능성 (20%)	발굴필요성 (15%)	◎	◎	◎	□	□	□
	주변환경정비 (5%)	□	○	◎	○	□	○
순위		6	3	1	2	5	3

건축 및 전시계획

1. 건축계획수립

■ 배치계획 기본방향

- 경주 월성 발굴현장과 주변 문화재 및 문화시설과의 동선 연결을 고려한 열린 배치를 추구함
- 추후 출토 유물의 양과 종류, 운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하여 확장 가능한 배치를 고려함
- 중앙 집중적이거나 권위적으로 점유하는 형태가 아닌 주변 환경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배치를 추구함
- 사적지에 근접한 건축행위 임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지하층 개발을 피하며, 문화재 및 자연 경관성을 고려하여 법적 규정 건폐율 20%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를 적용함

■ 동선계획 기본방향

- 대지 내로의 접근은 이동 주체(관람객, 연구원, 관리자, 유물)와 접근수단(보행, 대중교통, 차량 및 서비스 차량)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 되어야 함
- 월성 발굴지와 연결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주 접근로를 계획하여 유적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발굴조사자의 이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대중교통수단 및 주변 관광지와 연결된 동선을 고려한 진입부 계획으로 인지성과 접근성을 극대화 함

(auri)

건축 및 전시계획

1. 건축계획수립

■ 건축세부계획 기본방향

- 유적지의 특성 및 법규상의 건축행위제한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비항구시설(가설건축물)로 건립함
- 시설의 사용 목적과 기능의 구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중 전람전시시설(전시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함
- 시설 내부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역할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건축 형태 디자인이 필요함
- 유적지와 주변 자연환경의 경관을 보존하고 극대화 할 수 있는 형태, 재료 및 구조가 적용되어야 함
- 내 외부 프로그램이 건축형태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기능과 사용자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써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물리적,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이는 친근한 이미지 추구
- 에너지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설비 시스템과 디자인으로 시설운영비를 절감하고 쾌적한 공간 환경을 구축 하도록함



<공공건축 전략>

1. 신 재생에너지 및 자연채광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물 구현
2. 주변환경과의 조화성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건축물
3. 편안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디자인
4. 모두에게 열려있는 개방적인 디자인
5.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문화적 고유성 디자인
6. 사용자 안전을 우선 반영한 디자인
7. 미래지향적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공공건축디자인 7대원칙>

II. 기본계획 수립

건축 및 전시계획

1. 건축계획수립

■ 건축조형계획 기본방향

- 형태와 구조면에서 전통식과 현대식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으며, 존립기간 및 공간의 가변성 고려 필요
- 각 시설의 기능에 적합한 구조를 적용하고 주변 자연,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도록 함
- 유물 보존과 관련된 수장고 및 상설전시관은 외기 및 열에 강한 구조를 적용하되 추후 늘어날 유물의 양을 고려하여 증축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연구 공간 및 서비스 공간은 자연채광과 쾌적한 습도, 온도 조절에 적합한 재료와 형태를 적용
- 월성지구의 역사성과 발굴조사의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시설로 유적지를 뒷받침해주는 기능과 함께 의미 있는 건축조형 디자인으로 관람객들에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함



네주박물관(일본)



베를린 현대미술관(독일)



미호 박물관(일본)



Archaeological Pavilion(독일)

(au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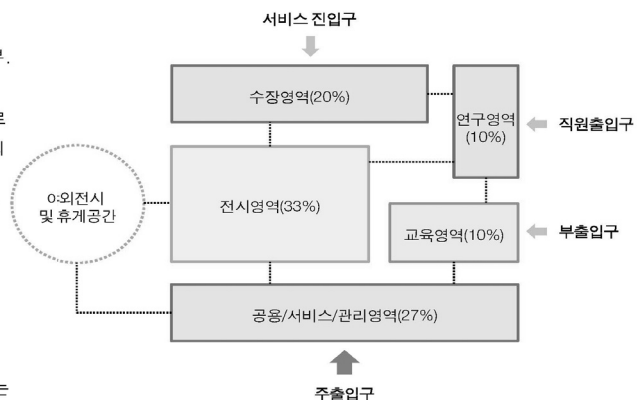
II. 기본계획 수립

건축 및 전시계획

1. 건축계획수립

■ 시설배치계획

- 진입/서비스영역 : 경주월성 발굴 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부. 방문객을 위한 안내시설 및 서비스시설 배치
- 연구/수장 영역 : 연구시설과 수장시설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근접 배치 필요. 동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유물정리 및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후 발굴조사의 현장성과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오픈수장고형 전시를 기획 하는 등 수장영역을 유연하게 활용
- 전시영역 : 자료관 및 기록관으로써 전시영역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진입공간에서부터 영상실, 전시실, 수장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전시방식으로 계획
- 교육영역 : 경주 월성관련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민교육장, 학술회의장 또는 기타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으로 계획
- 외부공간영역 : 시설의 외부공간을 활용한 야외전시 및 휴게 공간을 통해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도록 함



(auri)

건축 및 전시계획

1. 건축계획수립

■ 시설배치계획(안)

- 현재 임시 발굴조사단 사무실 + 자료관 (규모: 1층)

구분	영역	실명	면적	비고
기존 임시조사단 시설	연구영역	연구실	162m ²	
		소회의실	32m ²	
	수장영역	임시수장고	108m ²	
	관리영역	관리실	15m ²	
		화장실	12m ²	
	소계		329m ²	

구분	영역	실명	면적	비고
수장고 및 자료관	진입/서비스영역 (3%)	휴게실	48m ²	
		안내데스크	6m ²	
	전시영역 (23%)	중앙 전시홀	30m ²	진입영역과 연결
		영상실	100m ²	
		전시실	284m ²	가변형 다목적실
	연구영역 (10%)	소장실	20m ²	
		회의실	120m ²	약 50명 수용
		학예실	40m ²	약 5명 이용
	수장영역 (40%)	수장고	700m ²	보존과학실, 정리 실 등 포함
		관리실	20m ²	
	교육영역 (7%)	교육실	126m ²	
	관리/공용영역 (17%)	기계/전기실	150m ²	
공용시설 (복비, 화장실, 복도 등)		156m ²		
소계			1,800m ²	
총계			2,129m ²	

운영계획

1. 자료관 콘텐츠 계획

■ 자료관 계획 전략

- 경주월성 발굴조사 자료관은 단순히 유적지에 대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지역 역사문화활동의 거점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이 필요함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등록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도입 추진과 함께 시행되었던 공공문화 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정성평가) 선정 기준을 참고하면 크게 전시, 교육, 문화행사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정체성, 차별성, 효과성, 공공성/지역성을 평가하여 공립박물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부문	선정 기준
전시 부문	정체성 25% 박물관의 특성과 설립 취지가 잘 반영된 전시를 운영하고 있는가?
	차별성 25% 타 박물관과 차별화 된 전시를 기획하여 운영하는가?
	효과성 25%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가? : 관람객 증가, 기획전 수, 전시회 회전 주기 등
	공공성/지역성 25%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시를 하고 있는가? 지역 향토유물을 활용한 전시를 하고 있는가?
교육 부문	정체성 25% 박물관의 특성과 설립 취지가 잘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차별성 25% 타 박물관과 차별화 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효과성 25%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가? : 교육/체험 참여자 증가, 교육/체험 프로그램 수
	공공성/지역성 25%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소외 계층을 배려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문화 행사 부문	정체성 25% 박물관의 특성과 설립 취지가 잘 반영된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차별성 25% 타 박물관과 차별화 된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효과성 25%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가? : 문화행사 참여자 증가, 문화행사 수
	공공성/지역성 25%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소외 계층을 배려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2014년 전국 등록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 우수사례 선정 기준〉

II. 기본계획 수립

운영계획

1. 자료관 콘텐츠 계획

■ 전시부문 콘텐츠 계획

- 현장성이 높은 유적전시관의 형태이므로 유적지와 연계성이 높은 전시기획이 필요하며, 발굴현장을 활용한 야외전시와 실내전시의 내용이 상호보완적으로 계획되어야 함
- 신라 왕경 및 관련유적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는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상호보완적인 전시를 구성하여야 하며, 독립 전시관으로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가 필요함

시설명	전시구성	전시내용
국립 경주 박물관	신라역사관	신라의 건국과 변영과정의 전체적인 신라의 역사 소개
	신라미술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미술품과 황룡사 터 출토 유물 및 축소복원 모형 등 전시
	월지관	경주 동궁과 월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왕실의 생활문화와 신라의 건축문화 소개
	옥외전시관	석탑, 범종, 석불, 석등 등의 석조품을 전시
황룡사 연구 센터 (건립중)	홍보영상실	황룡사 중심 왕경지구 추정복원3D 디지털영상을 상영
	모형전시실	1/10 황룡사 구층목탑 모형을 재현
	역사실	황룡사의 역사 및 관련 설화, 발굴과 연구과정 영상
	고건축실	황룡사의 건축사적 의의와 역사적 의의
	체험실/전망대	가상현실 VR로 디지털 복원된 목탑과 기암과 합성된 황룡사 유적 현장을 전망대에서 관람함
월정고원시흥보관		월정고 복원 모형, 관련된 역사 및 건축적 정보 전시
쪽섬유적발굴관		제44호 고분 발굴과정, 신라고분의 역사와 구조
신라왕궁영상관		신라왕궁의 3D복원 영상 상영
교촌홍보관		최부자집과 교촌마을의 역사 및 교촌한옥마을을 소개
경주문화원		조선시대 경주의 역사와 문화 전시
경주역사문화관(안)		신라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
〈인근 문화시설 내 관련 전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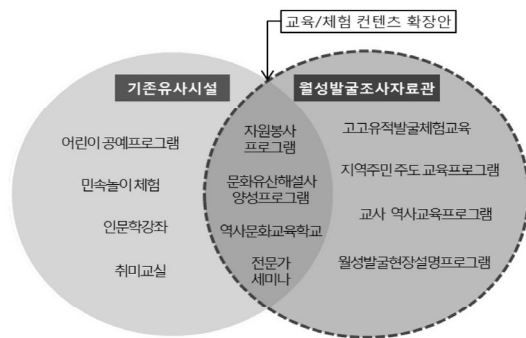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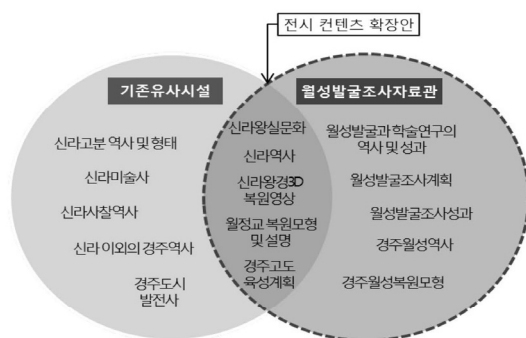
II. 기본계획 수립

운영계획

1. 자료관 콘텐츠 계획

■ 전시부문 콘텐츠 계획

■ 교육/체험부문 콘텐츠 계획



운영계획

2. 발굴조사운영시설 운영 체계 및 조직구성

■ 운영주체 검토

- 운영주체 선정 기준으로 시설의 주요 기능인 연구/유물수장·정리 기능과 홍보/전시/교육 기능을 적절하게 균형조절 할 수 있는 역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발굴조사단과의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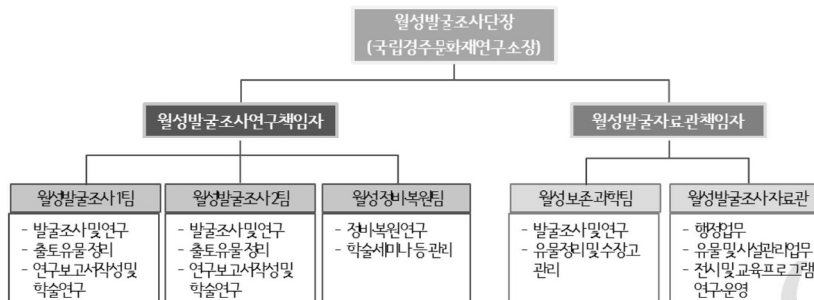
운영주체	검토대상	장점	단점
중앙정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과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보유 발굴현장공개 관련 프로그램운영에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문화시설및행사와의연계된기획에제한이있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복원·정비및전시기획을위한전문성이높음 국립경주박물관과연계된프로그램운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조사연구와직접적인연계성이낮음
경주시 직영	신라문화용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주체로인정적인재원확충및관리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확보및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한계가있음
	시립공원관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전문인력활용한 운영에용이하며발굴지관리에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및홍보관 기획에제한이있음
경주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전문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 축제·행사와의 연계에 효율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능이저하되고홍보관의전문성이낮아질 우려가있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굴및 연구인력활용이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관 전시및 교육프로그램운영에한계가있음
	경주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참여를높이는데용이함 교육·체험 프로그램의연계가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조사연구와연계성이낮음
경주시공단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현장 관리와함께 시설의운영 관리가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및홍보관 기획에제한이있음

운영계획

2. 발굴조사운영시설 운영 체계 및 조직구성

■ 운영조직 구성

- 발굴조사와 연구가 장기간으로 진행되면서 자료관이 함께 운영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구성이 필요함
- 발굴조사주체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전체 시설의 주체가 되어, 발굴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월성발굴조사단과 유물정리와 자료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관련 기획 연구를 운영하는 월성자료관으로 구성하도록 함
- 발굴조사단과 자료관 운영단은 업무의 분할과 협조에 있어 유동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월성발굴조사 자료관 팀은 자료관 시설뿐만 아니라 발굴현장 관리도 함께 수행하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함



II. 기본계획 수립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안 제시

1. 건립대상지



구분	내용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일반 28일대
지목	사적지
대지면적	약 9,000m ²
지역지구 지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녹지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월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건폐율	20% 이하 (약 1,800m ² 까지 가능)
용적률	60% 이하 (약 5,400m ² 까지 가능)
최대층수	2층 (약 3,600m ² 까지 가능)

(auri)

II. 기본계획 수립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안 제시

2. 건축계획

■ 배치계획



auri

II. 기본계획 수립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안 제시

2. 건축계획

■ 건축세부계획

구분	내용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1,800m ²
건축연면적	1,800m ²
건폐율	20%
용적률	20%
최대층수	1층
구조	경량 철골구조

구분	영역	실명	면적	비고
기존 임시조사단 시설	연구영역	연구실	162m ²	
		소회의실	32m ²	
	수장영역	임시수장고	108m ²	
	관리영역	관리실	15m ²	
		화장실	12m ²	
소계			329m ²	
수장고 및 자료관	진입/서비스 영역 (3%)	휴게실	48m ²	
		안내데스크	6m ²	
	전시영역 (23%)	중앙 전시홀	30m ²	진입영역과 연결
		영상실	100m ²	
		전시실	284m ²	가변형 다목적실
	연구영역 (10%)	소장실	20m ²	
		회의실	120m ²	약 50명 수용
		학예실	40m ²	약 5명 이용
	수장영역 (40%)	수장고	700m ²	보존사무실, 보존처리실등 포함
		관리실	20m ²	
	교육영역 (10%)	교육실	126m ²	
	관리/공용 영역 (17%)	기계/전기실	150m ²	
		공용시설 (로비, 화장실, 복도 등)	156m ²	
소계			1,800m ²	
총계			2,129m ²	

II.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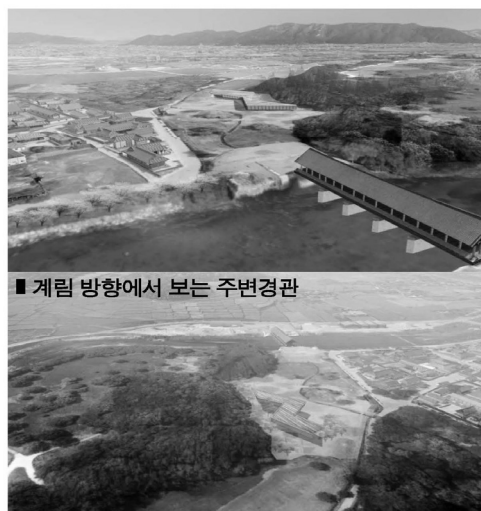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안 제시

3. 주변경관시물레이션

■ 교촌 방향에서 보는 주변경관



■ 월정교 방향에서 보는 주변경관



■ 계림 방향에서 보는 주변경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역사도시 유적지 주변의 공공건축, 도전과 과제 37

II. 기본계획 수립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안 제시

4. 중장기운영계획

■ 콘텐츠의 확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역사도시 유적지 주변의 공공건축, 도전과 과제 38

II. 기본계획 수립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안 제시

4. 중장기운영계획

■ 기능 및 조직의 발전

사업타당성 검토

1. 비용·편익 분석

■ 비용의 추정 (시설투자비)

구분	금액(원)	비고
공사비	4,001,247,273	공사면적×단위면적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400,124,727	공사비의 10%
계	4,401,372,000	
설계비	209,286,000	공사비 대비 설계비 비율(4.7549%)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감리비	52,382,000	공사비 대비 건축공사감리대가요율(1.1900%)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시설부대비	13,860,000	공사비 대비 시설부대비 비율(0.3149%)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4,676,9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비용의 추정 (시설운영비)

인건비	245,324,392	월성보존 과학팀, 발굴조사 자료관립 인건비
기타 운영관리비	122,914,064	공공운영비, 시설비, 행사운영비등
합계	368,238,456	

■ 편익의 추정 (경제적 편익)

구분	연도	목표 방문객(명)	기준 지불의사금액(WTP)	경제적 편익(원/년)
1년	2018년	60,000 추정치 30%	1인 · 1회당 4,053원/년 (경주 유적지 역사경관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 이종이분석택형 CVM 적용)	243,180,000
2년	2019년	100,000 추정치 50%		405,300,000
3년	2020년	140,000 추정치 70%		567,420,000
4년	2021년	180,000 추정치 90%		729,540,000
5년	2022년	200,000 추정치 100%		810,600,000
6년 이후	2023년	200,000 안정기		810,600,000

사업타당성 검토

2. 경제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 경제적 타당성을 위한 비용 · 편익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비용			편익	편익-비용	할인율(r) 5.5% 적용		
	사업비	운영관리비	계			비용	편익	NPV
2016	2,410		2,410		-2,410	2,410		-2,410
2017	2,267		2,267		-2,267	2,149		-2,149
2018		368	367	243	331	218	218	-112
2019		377	376	415	321	353	353	32
2020		386	385	595	311	480	480	168
2021		395	394	782	302	599	599	296
2022		404	403	890	293	645	645	352
2046		708	706	1,558	142	313	313	171
2047		724	723	1,594	138	303	303	165
합계	4,677	15,881	20,488	33,480	12,993	11,184	13,450	2,265

■ 민감도 분석

- 할인율 4.5~7.5%, 이용수요(목표 방문객수) 80~100% 범위 내에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용수요(목표 방문객수)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경주월성 발굴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역사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방문객과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방문객수의 간접적인 편익 창출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타당성 검토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추정 개요 및 방법

-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북지역 산업연관표 (2009.11)를 기초로 추정함

■ 파급효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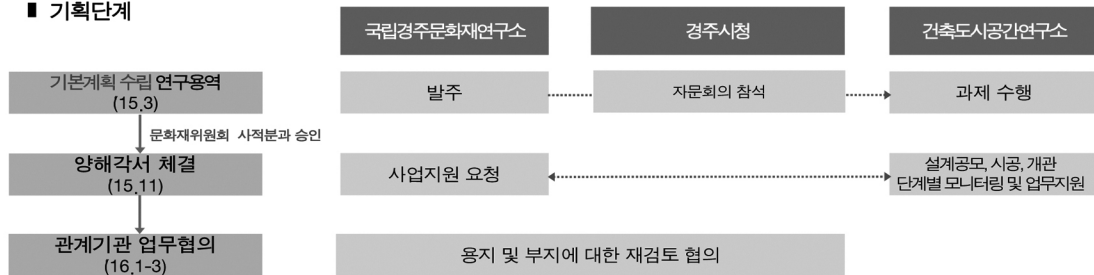
- 생산유발효과
 - 운영기간을 30년(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일반지침)으로 설정하면 생산유발효과는 총 310억 5천 2백만 원 발생 추정
- 부가가치유발효과
 - 운영기간을 30년(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일반지침)으로 설정하면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총 134억 7천만 원 발생 추정
- 취업유발효과
 - 운영기간을 30년(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일반지침)으로 설정하면 취업유발효과는 총 497명 발생 추정

구분	생산유발효과(백만원)	부가가치효과(백만원)	취업유발(명)
건립	9,529	3,821	77
운영	21,523 (30년 기준)	9,649 (30년 기준)	420 (30년 기준)
합계	31,052	13,470	497

III. 설계 공모

추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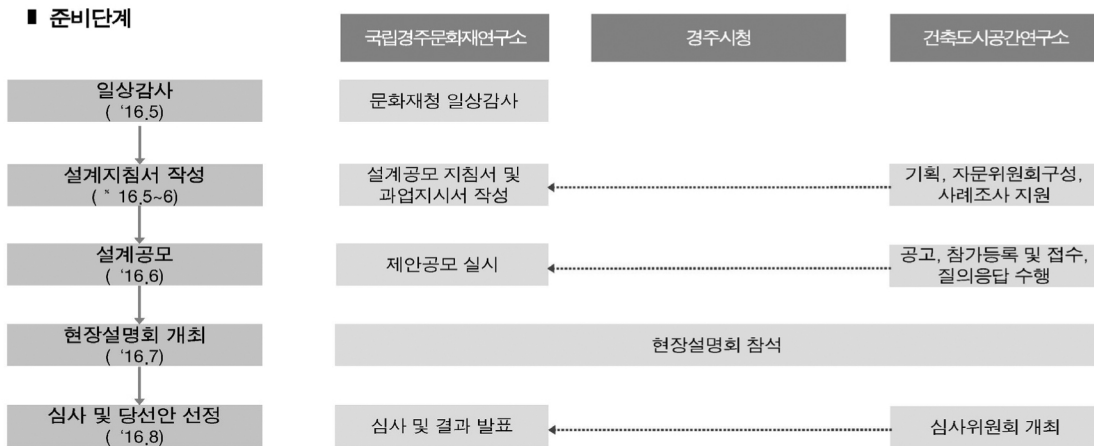
■ 기획단계



(a u r i

추진 경위

■ 준비단계



(a u r i

설계 공모 개요

- (발주기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사업규모) 약 1,800㎡
- (구조) 경량철골 구조와 같이 설치 및 철거에 용이한 구조(가설건축물)
- (예산) 총 공사비 : 4,847백만 원/ 예정 설계 용역비 : 198백만 원
- (설계공모방식) 제안공모(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설계자를 선정)
- (참가자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이며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부문(20점), 과제에 대한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80점)
- (심사 주안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발굴조사 기간 동안 사용할 가설건축물로서 문화재보호 역할, 운영시설의 기능, 디자인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a u r i

설계 지침 : 기본 방향 및 주안점

■ 월성지역과 주변지역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으며 경관적으로 조화로운 건축물을 계획

- 월성 및 주변 문화재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우선 고려
- 경주시 공공디자인 지침, 경주시 조례 등을 준수
- 대상지 하부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

■ 임시시설로서 문화재 수장, 조사 성과 홍보, 조사 연구관련 기능을 구현하면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 구현

- 비행구시설로 추후 이동 및 철거가 쉬운 구조를 사용
- 향후 출토 유물의 양과 종류, 운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평(수직)으로 확장 가능한 배치

■ 연구자(유물 수송, 발굴조사)와 관람객(전시, 교육)을 감안한 기능적인 동선계획

- 연구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발굴지와 연계하여 접근로 계획

■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및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a u r i

제안과제

■ 월성(사적 제16호)지역내 문화재경관 및 유구 보호를 위한 임시 건축물 계획 방안 제시(15점)

- 월성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디자인 아이디어 고려
- 월성 문화재를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하여 지역적(한국) 특성을 고려

■ 연구자 및 관람객을 감안한 기능적인 조닝 계획 및 동선계획 개념 제시(15점)

- 이용자(관람객, 연구원, 관리자, 유물)와 접근수단(보행, 대중교통, 차량 및 서비스 차량)을 고려한 효율적인 동선 계획
- 연구자와 관람객이 마주치는 동선과 공간을 최소로 계획하고 수장시설과 전시시설은 관람으로 인해 연구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

■ 비행구시설(가설건축물)의 특수성을 감안한 구조 및 설비 계획 제시(15점)

- 연구자의 추후 이동 및 철거가 쉬운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 고려
- 가설건축물의 한계를 감안하여 전시시설, 연구시설 등 다양한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 및 설비 아이디어 고려
- 향후 출토 유물의 양과 종류, 운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 계획 아이디어 고려

(a u r i)

설계공모 추진 과정

2016. 7. 4. 참가등록

- 총 4개 업체 등록



참가등록 현황

2016. 7. 7. 현장설명회

- 참석 :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응모자 4개팀



현장설명회 현장

2016. 7. 28. 작품접수

- 총 3개 팀 제출



제안서 제출

(a u r i)

III. 설계 공모

설계공모 추진 과정

2016. 8. 4. 작품심사

- 심사위원 : 한필원(한남대), 이관석(경희대), 이병연(충북대), 최삼영(가와건축)



심사위원회 현장

2016. 8. 10. 당선작 발표

-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시행문서

2016. 8. 26. 계약 및 입상작 보상

- 당 선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 : 상금 500만 원
- 입 선 : 상금 2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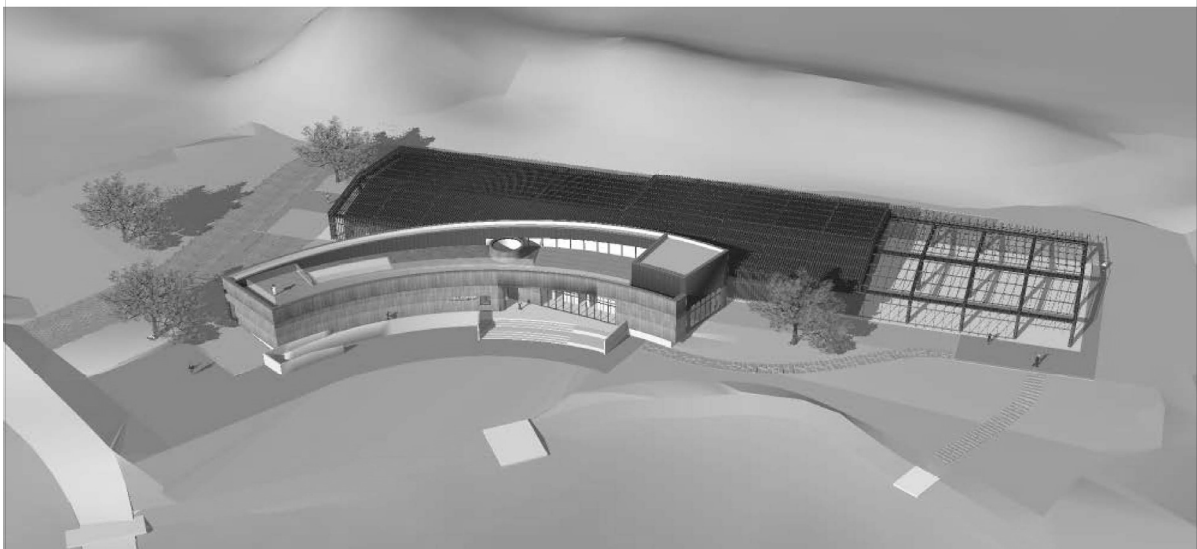


당선작 이미지

III. 설계 공모

당선안

조감도



III. 설계 공모

당선안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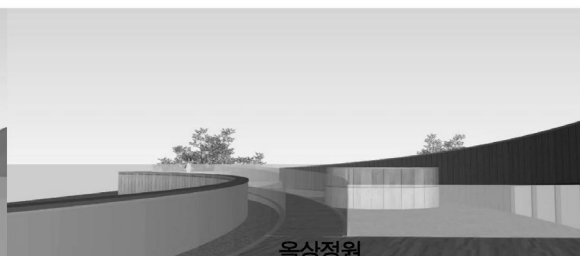
영상실



전시실



유물야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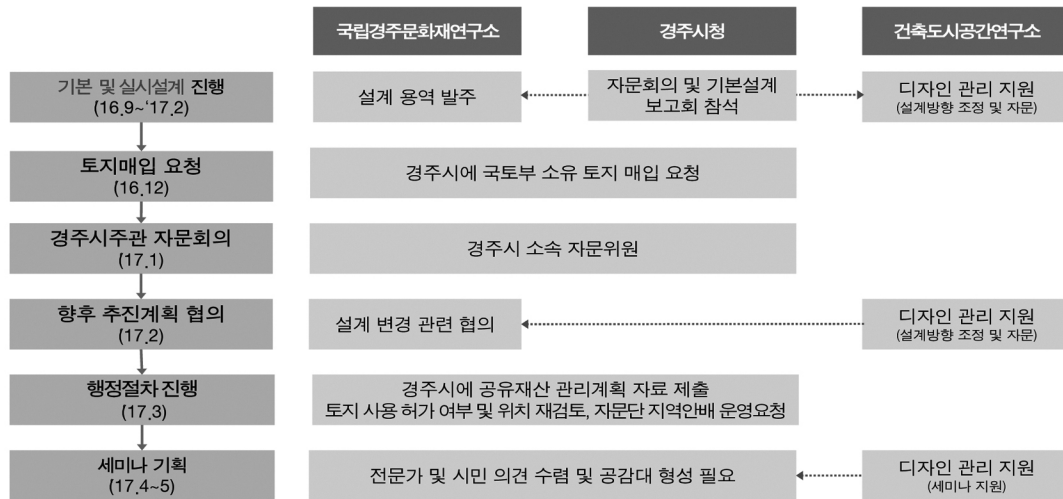
옥상정원

IV. 설계 진행

(a u r i

IV. 설계 진행

주요 일정



감사합니다



유럽의 적층된 역사와 현대건축의 공존

이 관 석
(경희대학교 교수)

유럽의 적층된 역사와 현대 건축의 공존

경희대학교 이관석 교수

1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소중히 지켜야 할 문화유산
- 계속 발전해야 할 역사
- 古都 경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2

- 서구문화를 이끌어온, 역사가 두껍게 쌓인 유럽 대륙에서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만나는가?
- 문화유산 인근의 뮤지엄 건축 사례
- 과거와 현재는 상호 갈등의 대상이 아닌,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상생(win win)의 대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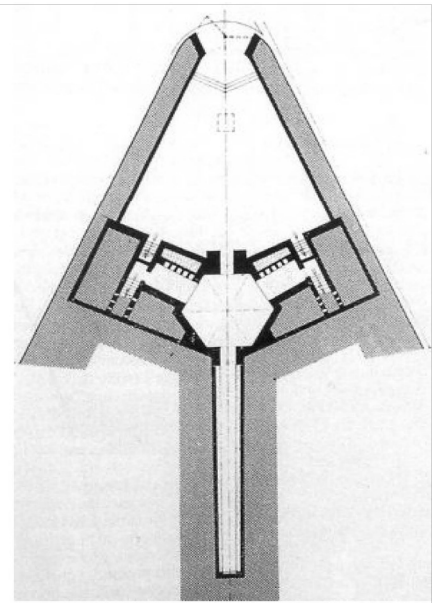
대성당과 현대 뮤지엄 / 자신을 감추며 기존을 존중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과 제2차 세계대전 강제이송 희생자 추념관



Mémorial des Martyrs de la Déportation, G.-H. Pinguisson, Paris, 1962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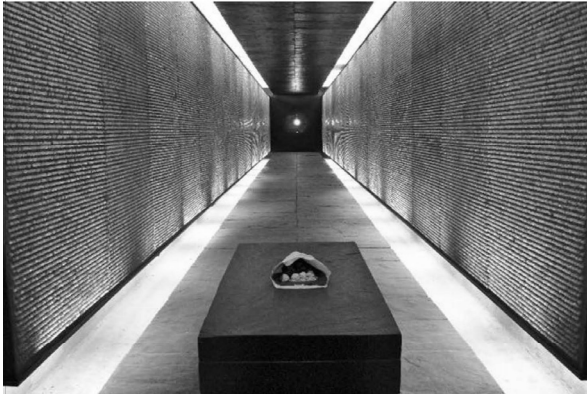


독일 강점기에 Vichy 괴뢰정부 하에서 강제수용소로 이송돼 숨진 20만 희생자 추모

5



개별적 죽음을 상징하는, 1인만 다닐 수 있는 좁은 통로, 강제수용소의 창살



- 자신을 감춤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절대적 존중 표현
- 전쟁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간으로서 지하 활용의 의미
- 다수의 방문자가 확보된 지역에서의 여유
- 공간에서 느끼는 전쟁과 억압,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유를 환기
- 건축의 본질이 실현되어 오직 공간만이 우리의 내면을 일깨움, 아무 것도 없지만 많은 생각을 안겨주는 곳

7

대성당과 현대 뮤지엄 / 겸양으로 기준을 존중

쾰른 대성당과 로마 게르만 박물관



Römische-Germanisches Museum, Heinz Röche, Köln, 1963-74

8



최대한 절제된 조형

대성당과의 차별성
(수직성↔수평성, 정교
함↔단순성 등)으로
대성당의 이미지 존
중, 신축 박물관의
정체성 확보

9



근대적 외관에 걸맞은 근대적 공간성의 전시공간(가변성, 연속성, 개방성)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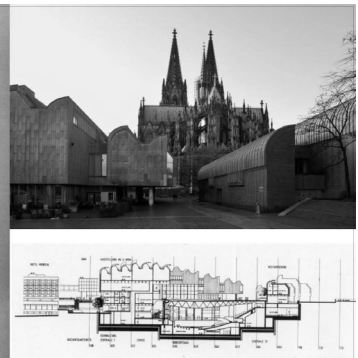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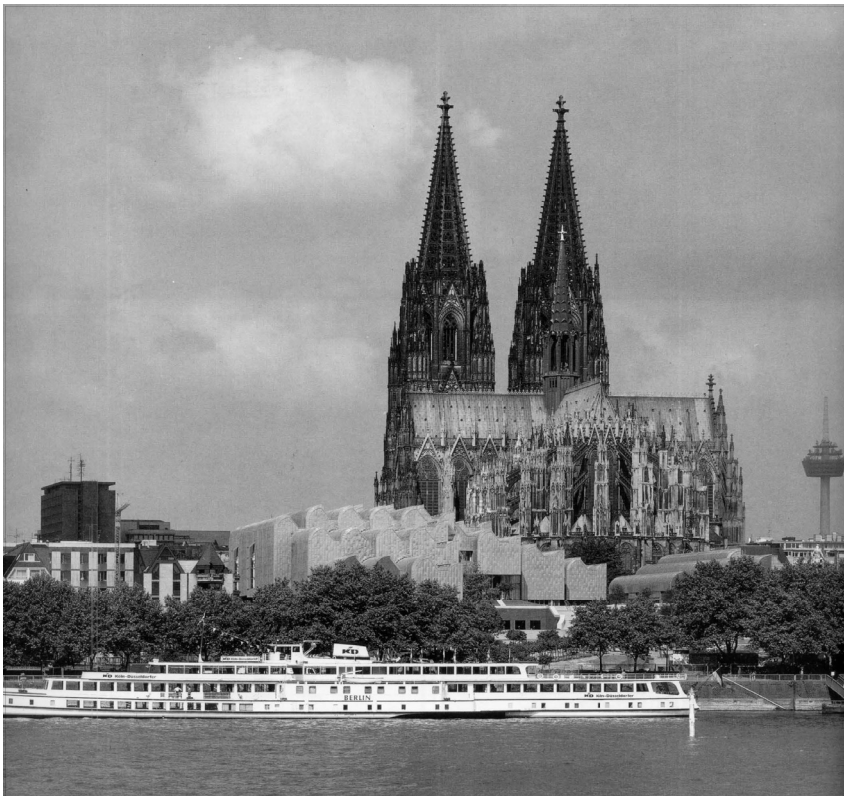
대성당과 현대 뮤지엄 / 낮춤과 참조로 기존 존중

컬른 대성당과 루트비히 미술관



Ludwig Museum, P. Busmann, Köln, 1975-8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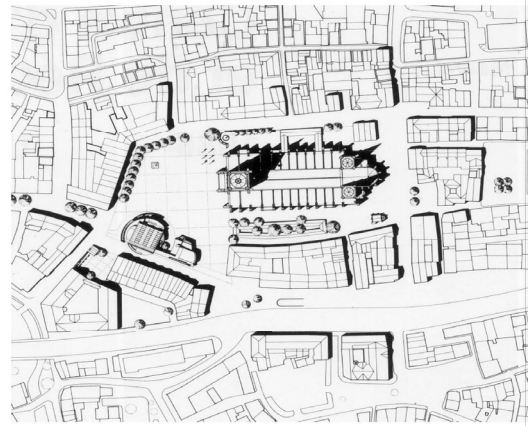


- 신축 미술관을 양쪽으로 갈라 그 사이에서 대성당 부상
- 첨탑들과 어울리는 고측창

12

대성당과 현대 뮤지엄 / 대조와 참조로 기존 존중

울름 대성당과 울름 슈타트하우스



Ulm Stadthaus, R. Meier, Ulm, 1986-93

13



겸양과 대조를 통한
상호 부각

14



기존 존중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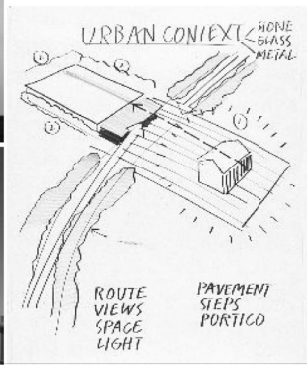
고대로마와 현재 / ‘이천 년의 시차를 있다’

까레 다르



Carré d'Art, N. Foster, Nîmes, 1984-9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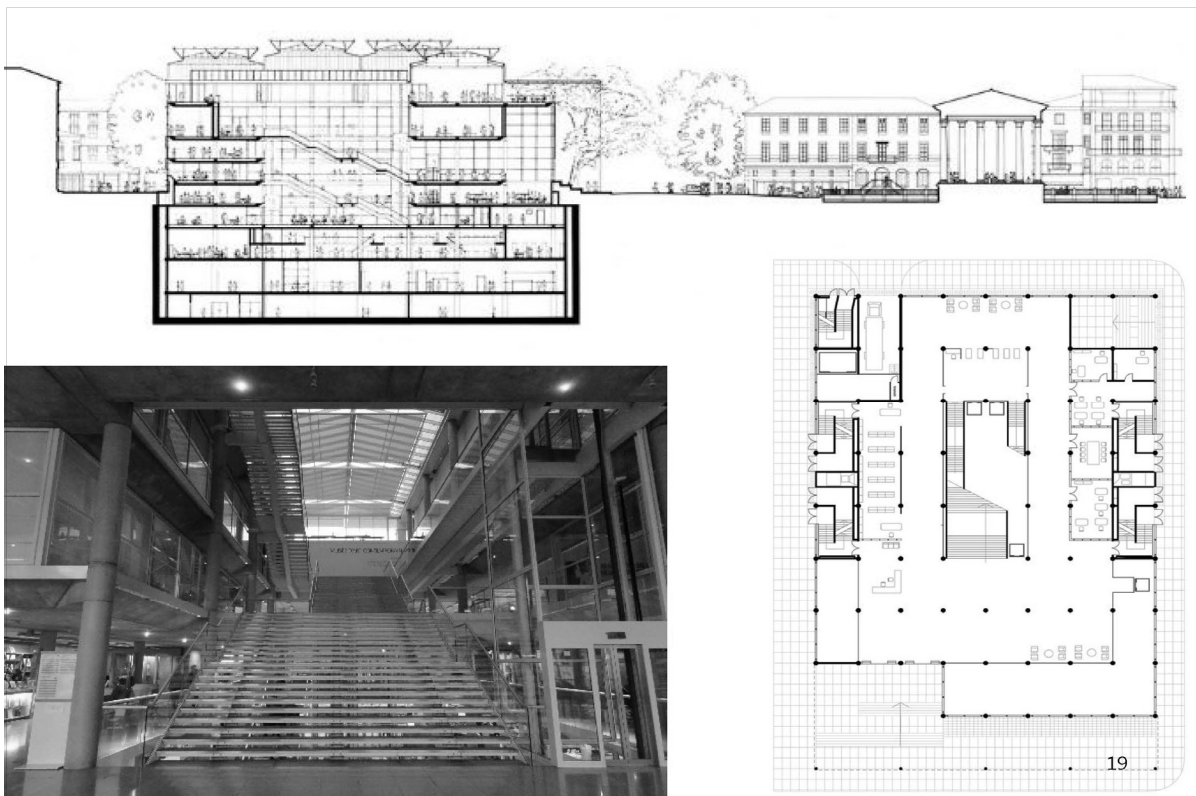


하이테크 건축가의 고전과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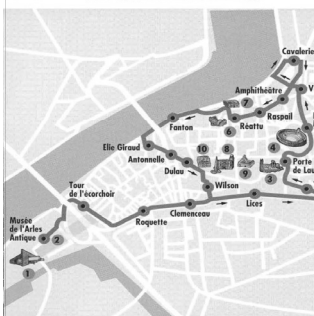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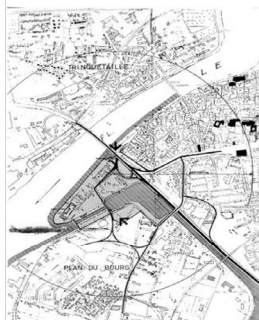
- 장소의 기억 보존
- 크기, 비례, 형태, 재료에서의 기존 감안
- 과거를 거스르지 않는 현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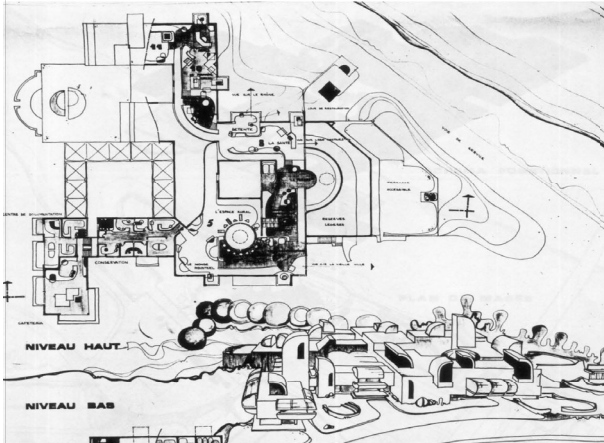


고대로마와 현재 / ‘고대성과 호흡하는 현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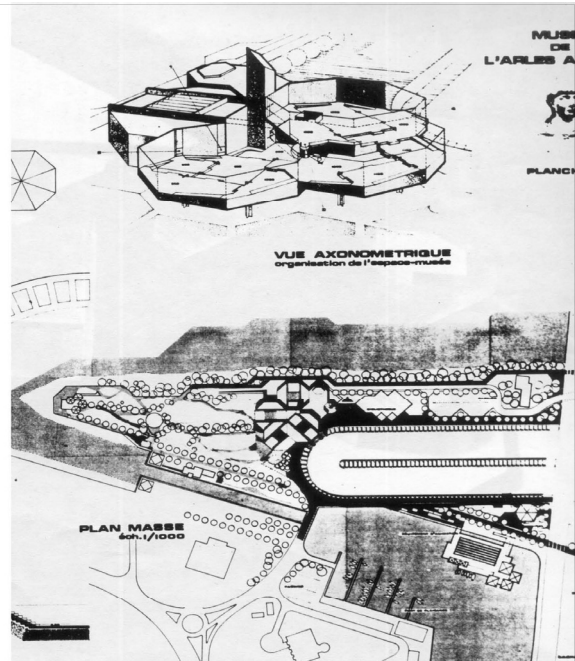
아를 고대사박물관 Musée de l'Arles Antique, H. Ciriani,
Arles, 1983-95



다른 현상설계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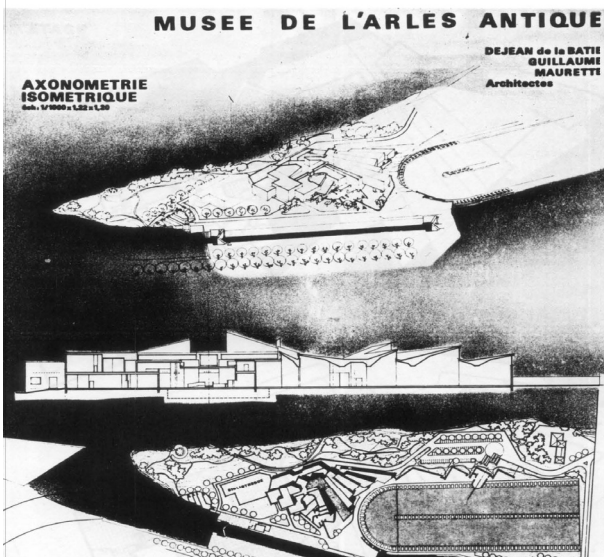
Les Arca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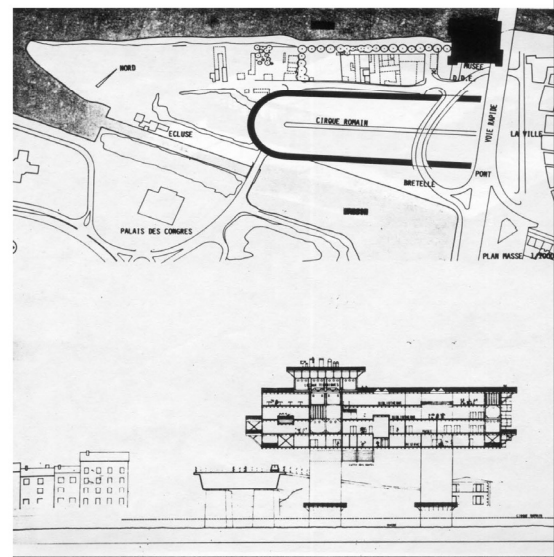
l'Octogone

21

다른 현상설계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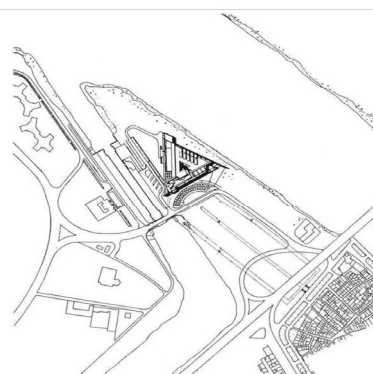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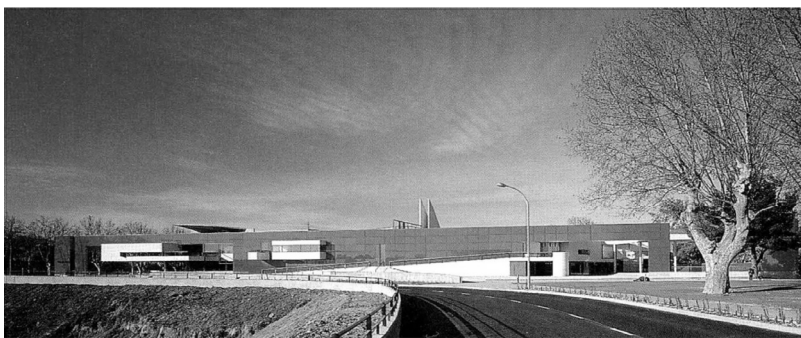


La Sculp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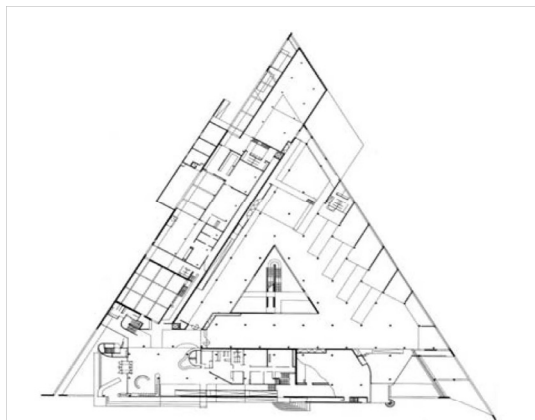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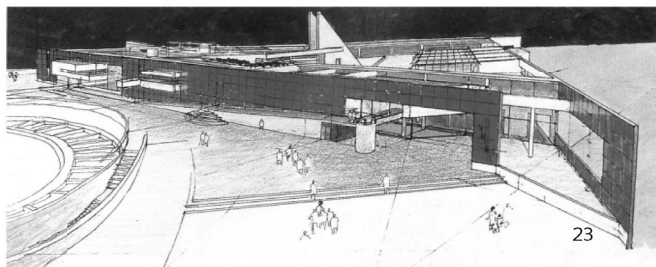
La Passerelle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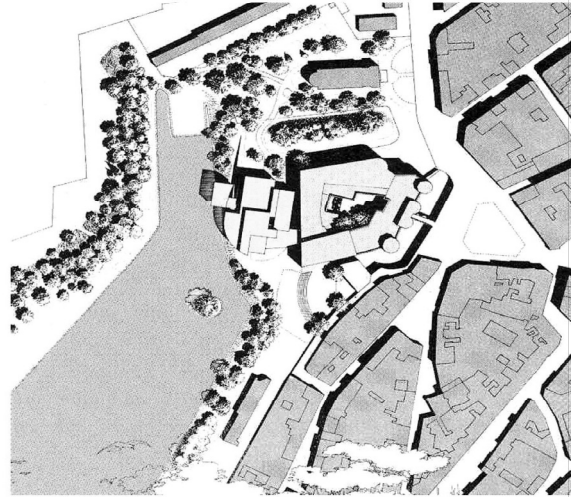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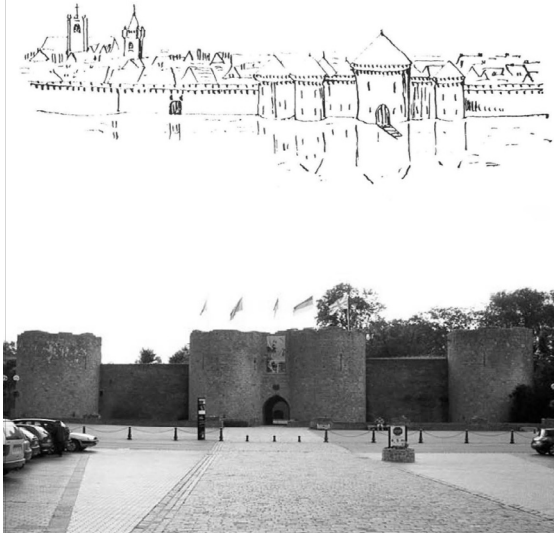
이례적인 삼각형 평면의 박물관

- 고대 로마건축의 기하학적 특성 감안
- 대지 형태와 프로그램의 특성 반영



역사적 중세성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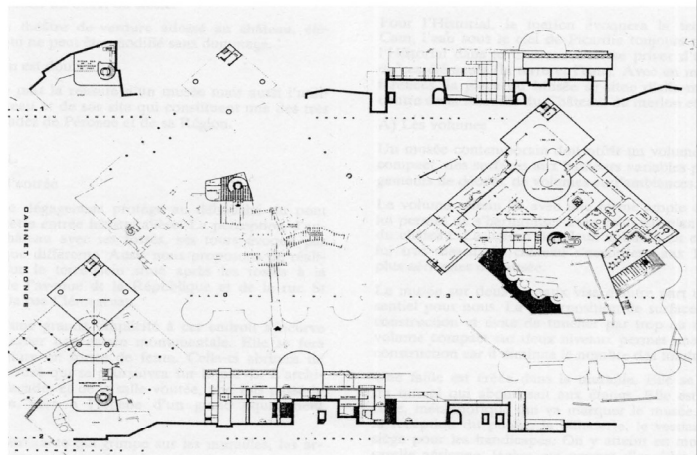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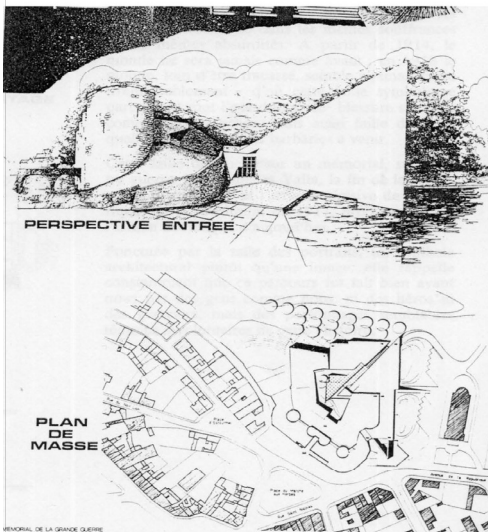
제1차 세계대전 역사관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H. Ciriani, Péronne, 198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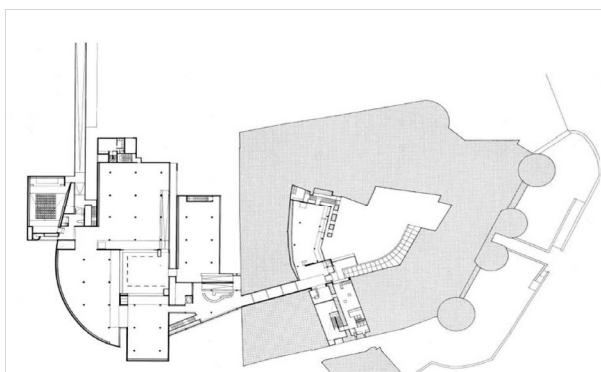
25

다른 현상설계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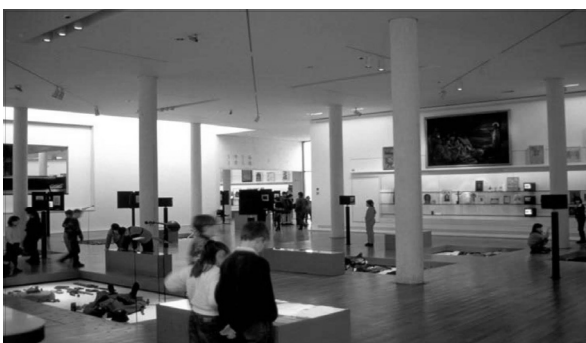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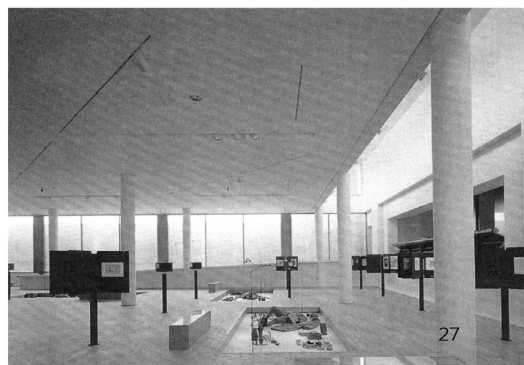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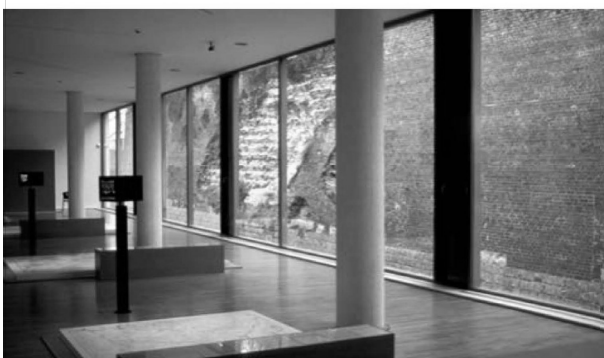


중세성 앞의 광장에서 신축 뮤지엄을 드러내기 위해 성벽을 훼손하거나 심지어 성벽 위에 파일을 박아 성벽 위에 건물의 띄워올리기도 함.

26



중세성의 변형 최소화 / 중세성의 중정을 명상을 준비하는 장소로 활용



전시물 감상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신축 뮤지엄의 모습을 알 수 있음.
백악질 토질에서의 참호전투였던 1차 세계대전을 상징해 백색 콘크리트 활용

28

과거와 현재의 성공적 공존을 위해

- 유럽의 고풍스런 도시들은 과거만 있고 현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과거를 존중하는 현재가 과거와 잘 조화됐기 때문
- 우리 전통건축의 소중함과 큰 감동, 교훈
- 과거의 재현만이 해결책인가?
- 민속촌이나 재현단지와는 다른 명품 역사도시에서 진품까지 박제화 우려

29

살아있는 역사를 위해

발굴과 보존, 보전, 복원의 중요성

과거 옆에 현재가 와서는 안 된다는 예단은 곤란

과거와 조화롭고 과거를 돋보이게 하는 현재 필요

역사는 과거만의 고수가 아닌 각 시대의 문화적 사건의 적층

주변을 잘 배려한 좋은 건축물이나가 평가 기준이어야

30

**역사가 적층된 맥락과 지역성은
응고된 불활성의 잔재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할
믿음직한 지침이다.**



역사도시 서울에서 현대건축하기

민 현 준
(홍익대학교 교수)

역사도시 서울에서 현대건축하기

소격동 165번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사례



〈그림 1〉 미술관 계획전 위성사진 2009년

Future but link to P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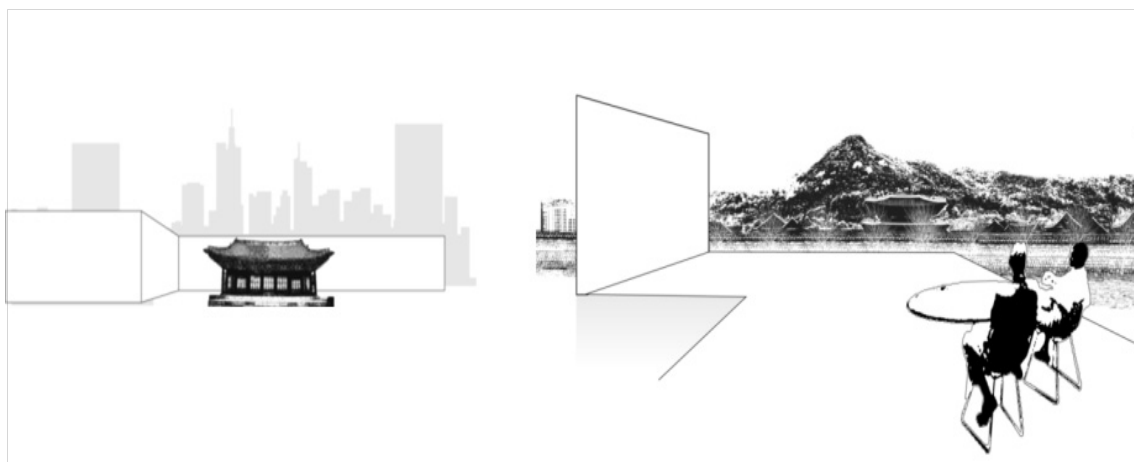
2013년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주변에 경복궁, 북촌이 있는 우리나라의 중심부이다. 과거 이 터에 있었던 구 국군기무사령부는 전두환 대통령이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를 일으켰던 곳이다. 또한 좌측 비슬나무 뒤에 있던 육군통합병원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운명한 장소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곳이 본래 종친부 터였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아무 유적이 없었지만 기록에 전두환 대통령이 사령부 내에 테니스장을 만들면서 옥첩당과 경근당을 정독도서관으로 옮겼고 실제로 그 테니스장 밑에 두 건물의 유구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2009년 12월부터 두 번의 공모전이 열렸다. 첫 번째 공모전의 심사위원은, 일본의 건축가 카즈요 세지마, 뉴욕 MoMA의 관장 베리 벅돌 그리고 이태리의

건축사학자 마르코 포가츠닉으로, 흥미로운 구성진이었다. 아이디어 공모로 총 117개 팀이 참가했고, 그 중 총 5개 팀이 선정되었다. 기존 방식과는 다른 매우 혁신적 선택으로 보였다. 화려한 CG효과를 자랑하는 대형 사무소의 안들은 모두 탈락하고 진지하고 조용하게 미술관을 계획한 안들이 선정되었다.

2차 공모전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5개 팀이 경합을 벌이게 되었다. 당초 예정보다 길어진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차 공모전이 대지에 대한 해석 중심이었다면 2차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 단순히 안을 선정하기 보다는 세미나 형식으로 각자 안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한 후 미술관 관계자와 함께 면적과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뒤늦게 언론에 이곳이 종친부 터임이 부각되면서 문화재 쪽의 반발이 생겼다. 이어 문화체육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이 종친부의 두 건물을 원 위치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공모전 일정이 지연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본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도 그 원인중의 하나라고 본다. 미술관 부지 선정과정에서 사회 통합적 관점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 이후로도 국립현대미술관은 종친부 혹은 구 기무사 건물의 처리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문화재 관련자들과 감정적인 갈등을 겪었다. 2차 공모의 심사는 일정 문제로 카즈오 세지마, 마르코 포가츠닉이 빠지고, 대신 아리타 이소자키와 프랑스의 장 마리 샤르팡티에가 참여했다. 심사 위원장은 김진균 서울대 교수에서 강석원 고려대 교수로 변경되었다. 심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째 날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둘째 날은 팀 별 20분 발표를 통해 진행되었다.

Shapeless Museum



〈그림 2〉 공모전 개념 다이어그램

우리가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의 핵심은 ‘무형의 미술관 Shapeless Museum’ 이었다. 서울의 오래된 주요건물들로 둘러싸인 이 곳에 또 다른 새로운 아이콘을 더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형태를 단순화하여, 주변 경복궁과 북촌 등 기존의 복잡한 형태의 전통건축이 도드라지도록 하는, 일련의 마당 중심의 장소 구축을 제안하고자 했다.

세부적으로 우선 도시의 길과 마당을 재생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 주변은 오랫동안 군부대시설로 사용되어 외부와 단절된 기간이 길었고, 주변 경계의 골목길들이 기형적으로 퇴화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어떻게 주변의 골목길들을 다시 연결하여 단절의 역사를 치유하느냐 였다. 사실 전혀 새로운 생각은 아니었다. 예전부터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열린 건축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대지를 우아하게 가르는 골목길, 그리고 그 길과 만나는 곳에 공방 등을 설치하여 가로와 호흡하도록 지침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 때문에 우리의 제안과 기존의 법령은 쉽게 조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뒤늦게 이곳이 종친부 터임이 부각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종친부의 배치와 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모든 법과 규칙을 처음부터 찾아봐야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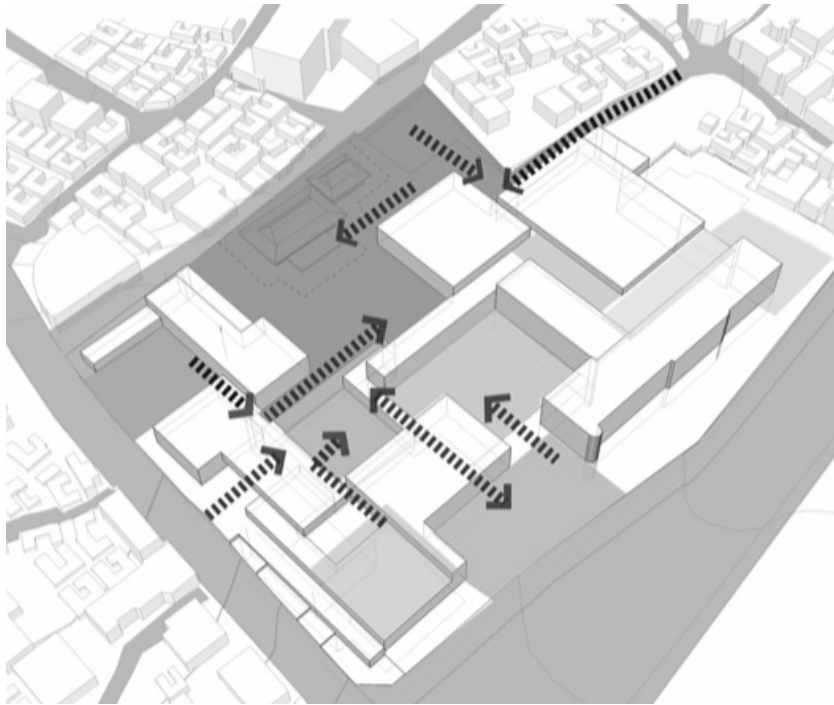
〈그림 3〉 배치개념: 길과 마당의 연결



〈그림 4〉 배치개념 종친부 마당의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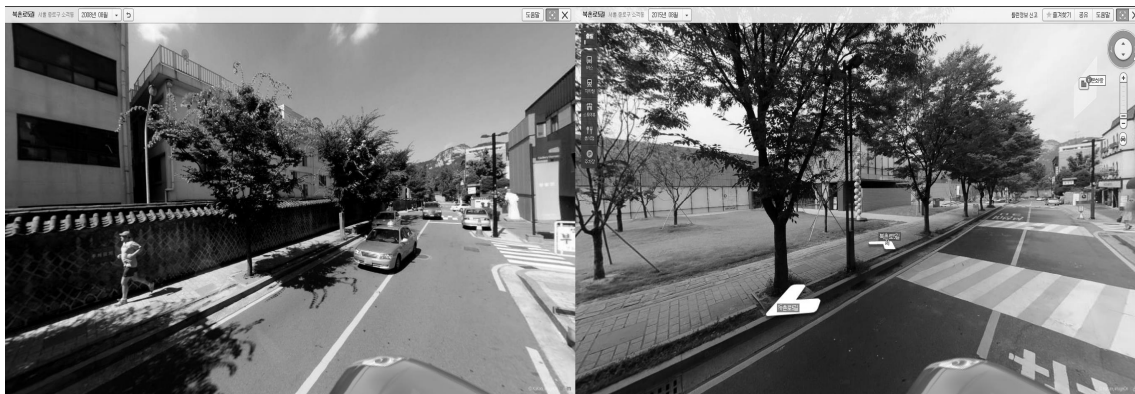
도시적 문제에서 출발한 대지 경계 마당의 아이디어는, 종친부라는 역사적 유적을 포함하기 위하여 본래 종친부의 주 축, 그리고 위, 아래 각 마당을 재현하는 가운데 ‘마당 네트워크’로 발전한다. 대지 안은 마당을, 길은 종친부의 주축을 강조하였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대지 어느 곳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관통할 수 있는 길과 마당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다. 종친부 복원 공식 발표 이후로는 군사시설로 인해 단절되었던 대지를 주변에서 관통

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주요 이슈였다. 주변 경복궁, 북촌 등 전통 건축물의 스케일을 고려하였을 때 대지 옆에 위치한 선재 미술관 정도의 크기가 적절한 크기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에 맞게 건축물을 7개의 매스로 분할하여 마당들의 빈 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배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입구-외삼문-내삼문-종친부로 연결되는 종친부의 중앙축을 복원하고, 그 중앙축의 좌, 우에 현대 미술관을 배치하는 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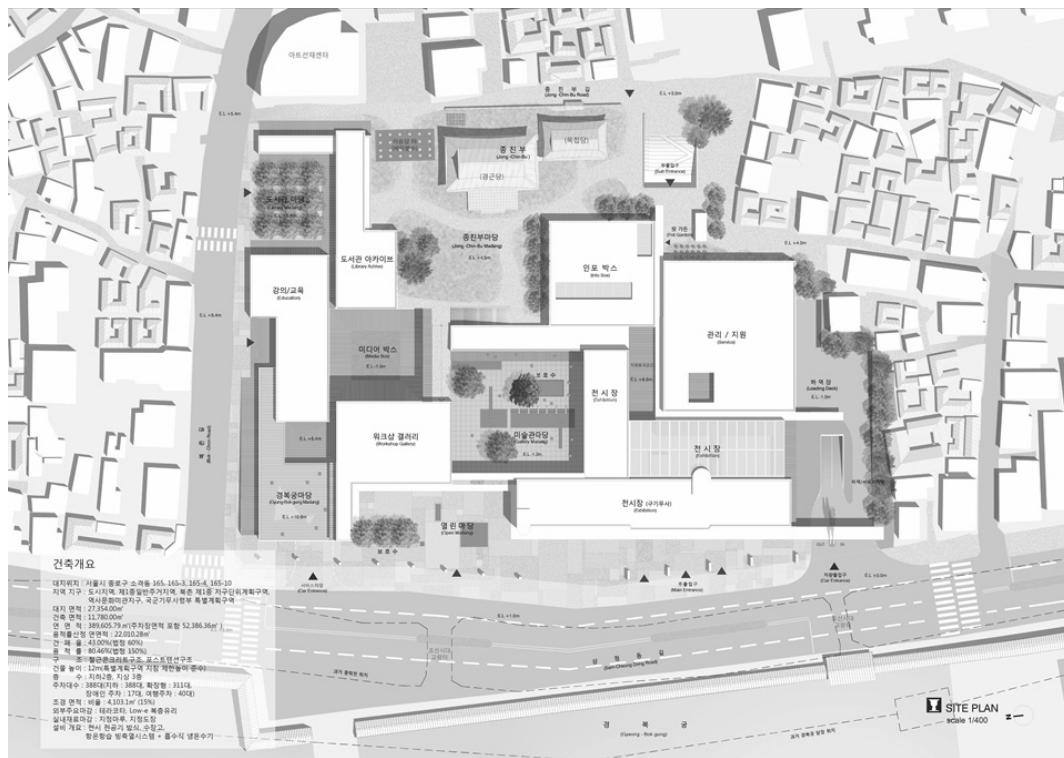
〈그림 5〉 길과 마당의 네트워크

Boundless Museum



〈그림 6〉 미술관 개관전후 대지 경계의 변화

국립현대미술관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갈 즈음 외부 공사용 담장이 제거되었다. 오랫동안 담장에 막혀있던 군부대가 열린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모습이 드러났다. 대지의 경계에 있는 마당은 이 장소의 이웃에게도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가 되었다. 처음 공개되고 놀란 표정으로 이 곳을 바라보시던 이웃 할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대지의 경계에 둔 마당은 통시적, 공시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방문자가 어디부터가 미술관이고 북촌의 일부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계획되었다. 방문자가 북촌 길을 거니는 와중 문득 미술관에 와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곳이 종친부의 역사와 근대사의 굴곡진 유적이 있는 곳임을 알게 하는 것이 그 의도였기 때문이다. 미술을 알고 온 이에게 역사를 깨닫게 하고 역사를 알고 온 이에게 미술을 깨닫게 하여 각자의 지평을 넓혀주는 작업이야말로, 이 대지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작동하는 원리이다.



〈그림 7〉 공모전 배치도

외관의 재료는 한옥의 암키와를 닮은 곡면형 테라코타 판넬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테라코타는 흙으로 만드는 재료로서, 전통 기와나 구 기무사의 붉은 벽돌과 같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소성방식도 동일하다. 즉 감성적으로 같은 질감을 전달하는 재료이다. 곡면형 테라코타는 암키와처럼 광택이 없는 재료이지만 태양 빛에 따라 다양한 음영을 만들며 반짝

거리게 된다. 게다가 오염 발생률이 적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마치 한옥의 지붕처럼 자연스럽게 외관을 유지할 것이다. 당시 나는 이를, ‘미술관 외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곳에서 그윽하게 익어갈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 더불어 어느 관람자가 스치듯 했던 말이 생각난다. “마치 오래 전부터 이 곳에 있었던 건물 같다.” 개관 한지 채 한 달이 안 되었을 때였다.

Moderate Outside Substantial Inside

언론의 지배적인 평은 새로운 현대 미술관인데도 전통, 그리고 이웃과 조화롭다는 평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가의 일방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곳은 4개의 문화재 심의를 포함하여 16개의 심의를 31번에 걸쳐 통과하는 기록을 가진 프로젝트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재와 이웃과의 갈등은, 안을 제시하여 중재하여야 하는 건축가의 가장 큰 숙제였다. 이 외에 도시계획, 서울시, 종로구, 장애인, 경관 등 수많은 서로 다른 이슈를 중재하는 것은 참으로 험난한 과정이었다. 이 가운데 나는 가능한 매스의 크기와 외부재료(상층부 곡면형 테라코타, 저층부 유리) 부분은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 현재의 조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외장재는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결정되었다. 일부 위원이 한옥으로 할 것을 주장했는데, 한옥으로 할 경우 고도제한이 발생해 따르기 힘든 요구였다. 대신 외벽에 기와와 비슷한 곡면형 테라코타를 사용하고, 저층부에 개방형인 유리구조를 사용하여 물성적으로 미술관의 외벽이 전통 건축의 촉감과 유사하도록 제안하였다. 테라코타는 흙을 이용해 기와와 유사한 소성 과정을 거쳐 만드는 재료로, 기본적으로 오염에 대해 자정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 테라코타가 세월이 지날수록 전통기와와 비슷하게 변해가면서, 미술관의 분위기를 마치 한옥의 지붕처럼 만들어 줄 재료라고 생각했다.

이 곳은 동시대성을 갖는 미술관이다. 아무 공간이나 전시장이라 명명한다고 전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국립미술관이란 이름에게는 미술계 전체를 아우르는 중립적인 성격이 필요했다. 또한 현대미술의 변화도 반영되어야 했다. 미술관과 문화재가 어우러지기 위해, 많은 공간을 문화재에 양보하면서도 전시라는 기능은 꼭 지켜주어야 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은 ‘외부는 주변과 조화되어 온화하지만, 내부는 대조적으로 거대공간의 연속이다.’ 라고 한 외신의 머리기사가 대변해 준다.

미술관의 내부와 외부는 확연히 다르다. 외부 공간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하여 가능한 절제되었다면, 내부 공간은 성격이 뚜렷한 공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현대미술 자체의

공간으로 확보하였다. 계획에 있어 많은 부분을 기존의 과천 현대미술관과 대비되도록 하였다. 이미 과천에 있는 것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천이 준공된 이후 현대미술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천이 자연형이자 신전형 근대 미술관이라면 서울관은 도시형이자 문턱이 낮은 현대 미술관으로 설정하였다. 과천관의 모든 전시장이 3.5미터의 일정한 천장고를 가진, 벽에 거는 그림을 위한 전시장이다. 그에 비해 서울관은 보다 높고 변화 하는 천장고를 통해 그림보다는 설치중심의 전시장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서울시지정 보호수	2010. 10. 28	보호수 자문위원회 심의
2. 매장문화재 (종친부터유구)	2010. 10. 29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3. 종친부터 우물	2010. 10. 19.	종친부터 우물 발굴조사허가신청
	2011. 03. 15	종친부터 우물 보관장소 변경신고처리
4. 등록문화재(기무사)	2010. 12. 02	등록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
5.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2010. 12. 22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11. 01. 12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상정
	2011. 01. 27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고시
6. 국가지정 문화재 (경복궁)주변 현상변경_사적분과심의	2011. 02. 09	경복궁 주변 현상변경 심의
	2011. 03. 28	경복궁 주변 현상변경 사전자문의견수신
	2011. 04. 01	경복궁 주변 현상변경 재심의
7. 서울시 지정문화재 (종친부) 현상변경	2011. 01. 26	종친부 이전복원 현상변경 심의
	2011. 02. 23	종친부 이전복원 현상변경 (2차) 심의
	2011. 03. 18	종친부 이전복원 현상변경 (3차) 심의
8. 신재생에너지 설치신고	2011. 02. 01	신재생에너지 설치신고
	2011. 03. 03	신재생에너지 설치신고 검토 완료
9. 에너지절약 계획	2011. 01. 31	에너지절약계획 사전협의 접수
	2011. 02. 21	에너지절약계획 사전협의 완료
10. 종로구 건축교통 통합심의	2011. 02. 16	건축 교통 통합심의 (종로구)
	2011. 04. 19	종로구 구청장 면담
	2011. 04. 21	건축 교통 통합재심의 (종로구)
11.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	2011. 06. 16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 접수
	2011. 06. 24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
12. 빛공해방지심의	2011. 06. 24	빛공해방지 심의 접수
	2011. 07. 05	빛공해방지 (1차)심의(종로구)
13. BF인증(예비)	2011. 06. 24	BF예비인증 접수
	2011. 07. 07	BF예비인증 (1차)심의(한국장애인개발원)
14. 친환경인증(예비)	2011. 07. 07	친환경예비인증 접수
	2011. 07. 18(예정)	친환경예비인증 (1차)심의(크레비즈인증원)

〈표 1〉 인허가 관련 심의

지하전시장에 자연광을 유입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였다. 외부가 문화재와 조우하기 위해 전시장의 대부분은 지하공간으로 가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이 지하처럼 보이지 않기 위하여 다양하게 자연광이 유입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공간에 빛이 유입 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서울박스처럼 흐린 날 그림자 없는 확산광이 유입되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전시박스처럼 남향의 직사광선이 유입되는 곳도 있다. 서울박스 주변으로는 확산광을 광원으로 하는 전시장이 배치되어 있고, 전시박스의 어두운 그 중심에는 영상, 음향이 중심이 되는 블랙박스가 배치되어 있다.

지하 전시장에서, 관람객은 여기저기 흩어진 전시장을 따라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미술의 세계를 배회하게 된다. 이어 전시 관람을 마치고 나와 마주하게 되는 경복궁 방향의 출구는, 이곳이 장소 중심적 미술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Site Specific Art Museum



〈그림 8〉 아르헨티나 작가 에를리치의 대척점의 항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경복궁과 북촌을 느끼며 미술품을 감상하는 곳이다. 미술관 대지 내에 종친부와 근대역사 유적이 경계 없이 공존하고 있어 작가와 관람자 모두에게 영감을 제공한다. 해외 미술계 사람들이 이곳에 감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술관과 컨텍스트가 결합된 형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유한 방식이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가 자신만의 일방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문화재 측과 관련 주변 이웃 모두가 사회적인 합일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각 전시장은 외부와 단절된 개념인 화이트 큐브 계열이지만 도시를 보는 창이 하나씩 존재한다. 서울박스와 전시마당처럼 중요한 전시장의 창에는 중요한 컨텍스트가 담겨있다. 현대 작가는 이곳 전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작품을 구상하게 된다. 그 이전 세대처럼 그림은 작업실에서 그리고, 중립적인 전시장에는 그저 그림을 걸기만 하는 방식과는 달라졌다. 작가는 각 전시장을 소화할 수 있는 작품을 내야하며, 작품과 전시장은 이를 통해 결합된다. 이것이 현대미술의 특징이고, 미술관이 그 장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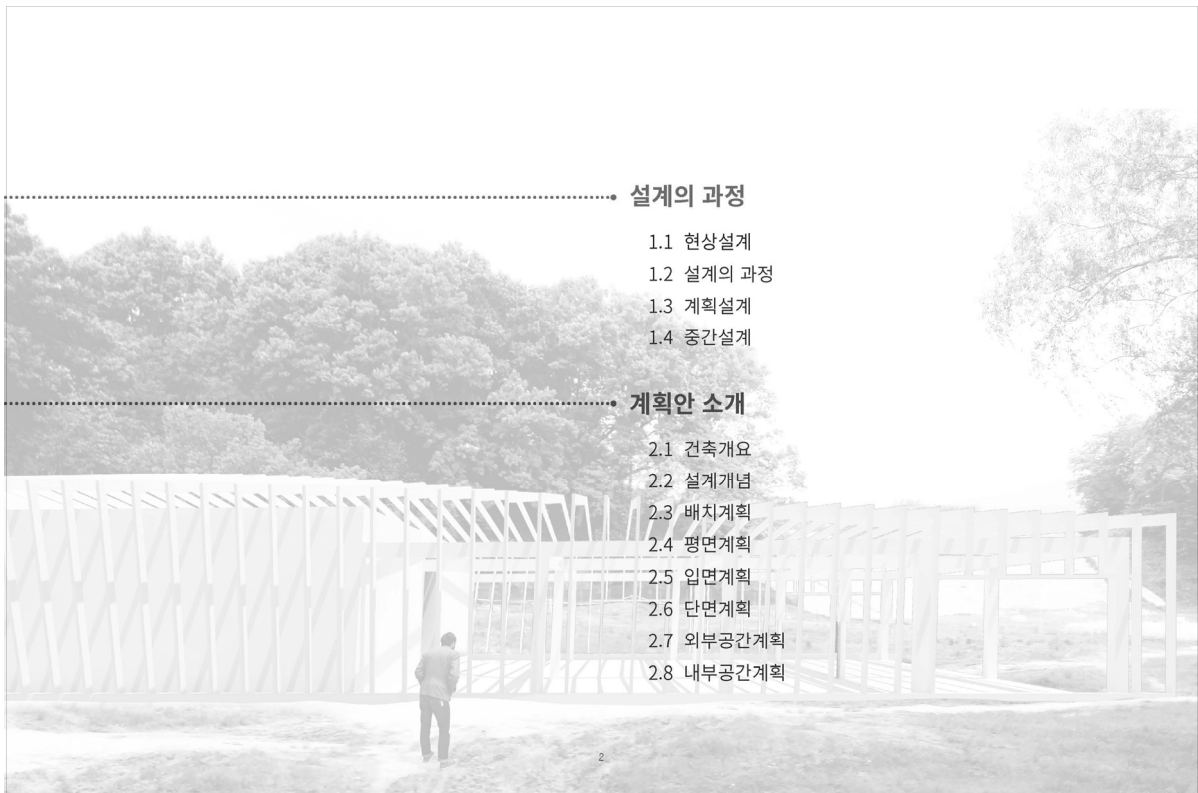
현대미술과 미술관은 왜 이렇게 변해 갔까. 아마도 그 이유는 인터넷의 스펙터클에 대항하여 살아남기 위해서일 것이다. 인터넷은 미술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었다. 굳이 미술관에 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터넷 내에서 미술품을 접하기가 너무나 쉬어졌다. 굳이 미술관에 와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미술관에는 그림과 공간이, 공간과 장소가 서로 결합되어 있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팔레트 도쿄의 관장이자 관계미학의 저자 니콜라 뷰리오는 이렇게 말했다. “현대미술의 의미는 인터넷의 스펙터클에 반대하여 작가와 관람자가 만들어가는 작은 관계이다.” 현대의 미술관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미술품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경험과 감동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과 현대가 경계 없이 공존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결합 방식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에 우리는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강 성 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대표)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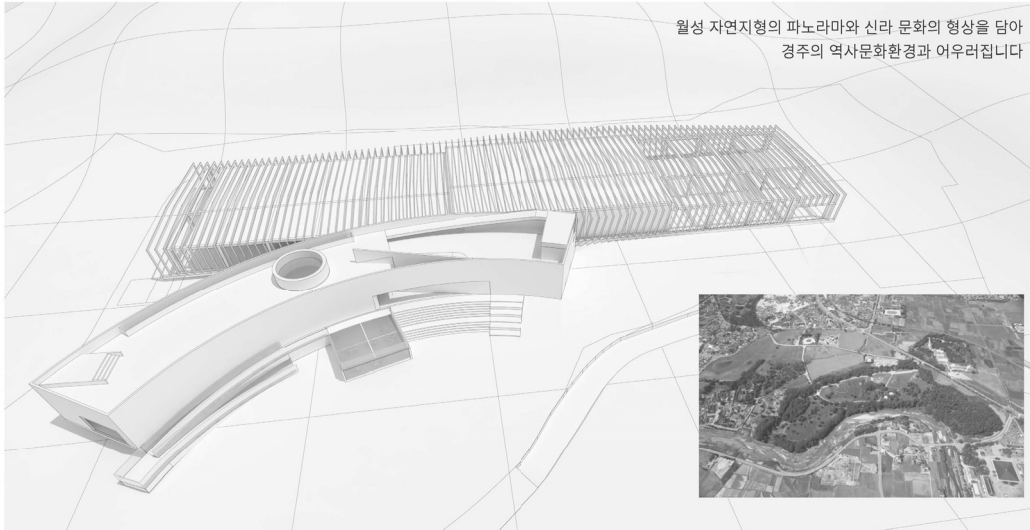


설계의 과정
1.1 현상설계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경주의 자연과 신라 문화를 은유하다

월성 자연지형의 파노라마와 신라 문화의 형상을 담아
경주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우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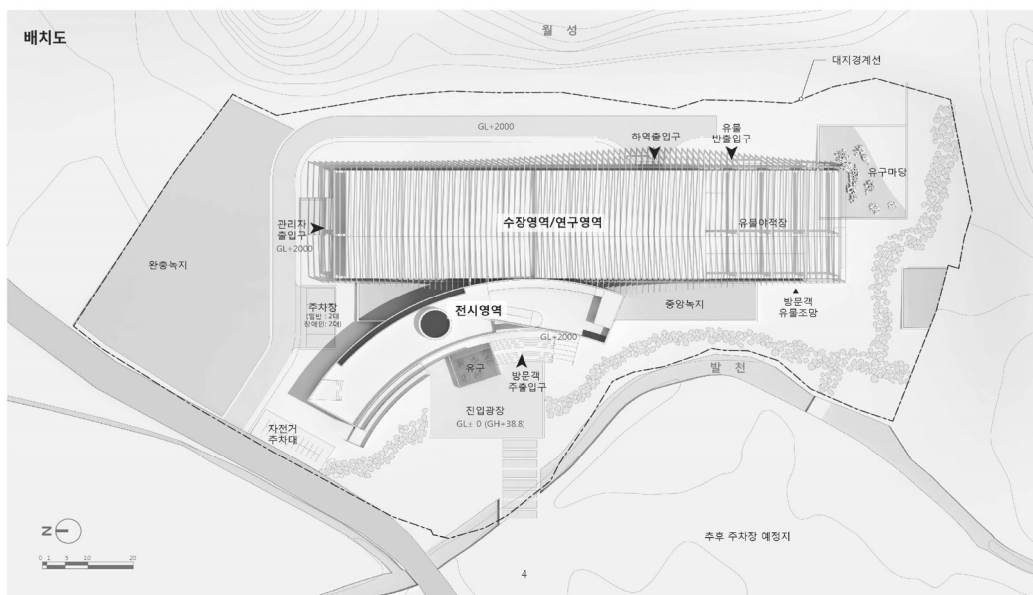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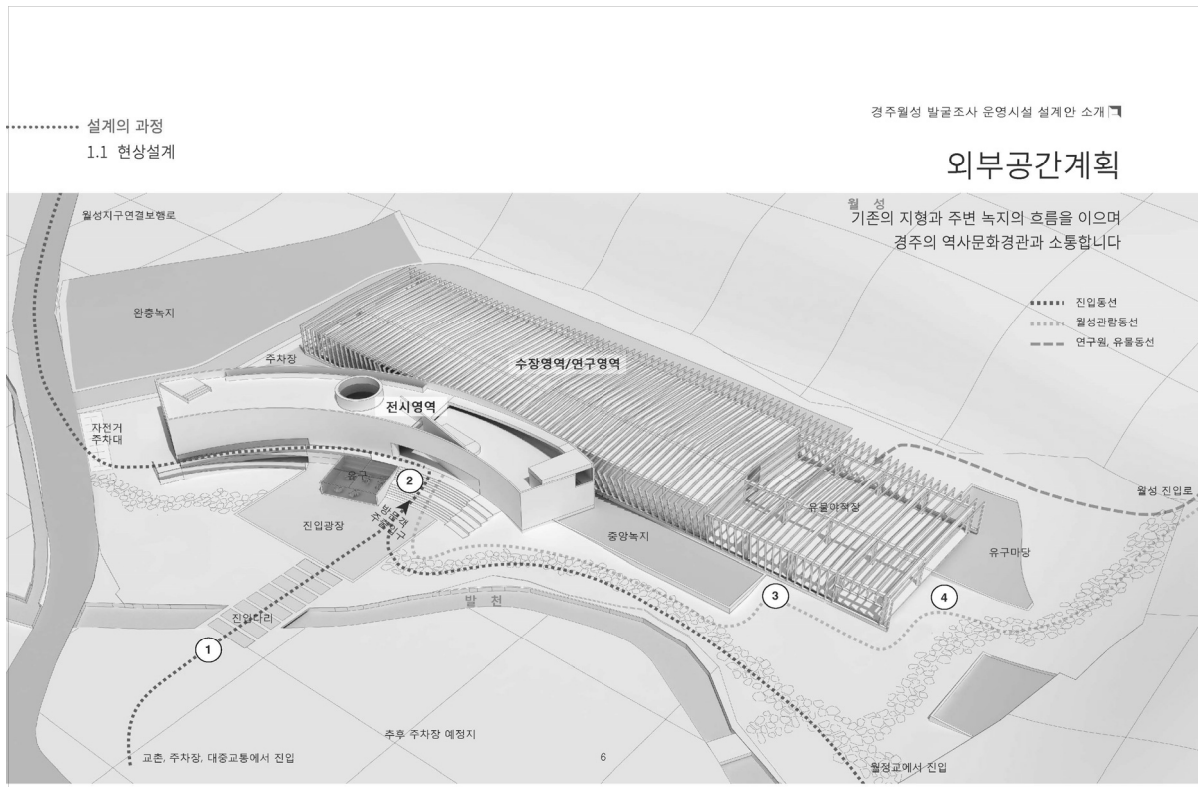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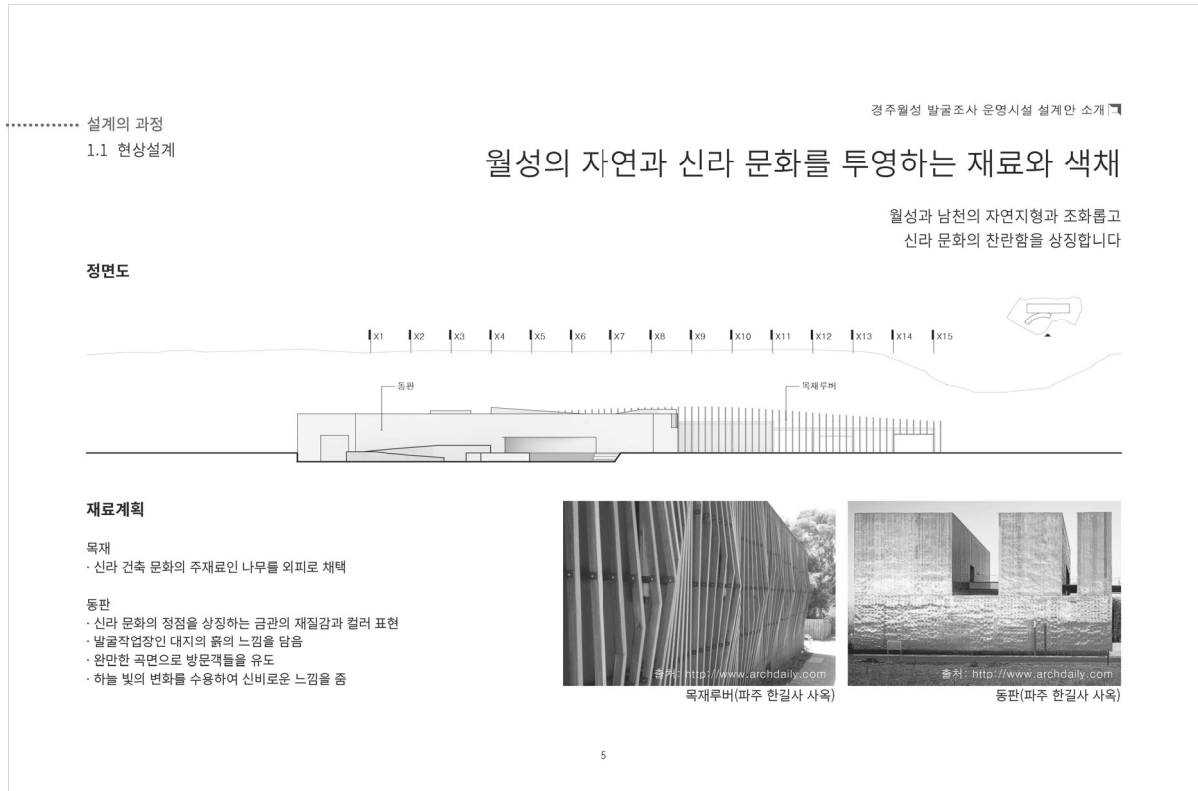
설계의 과정
1.1 현상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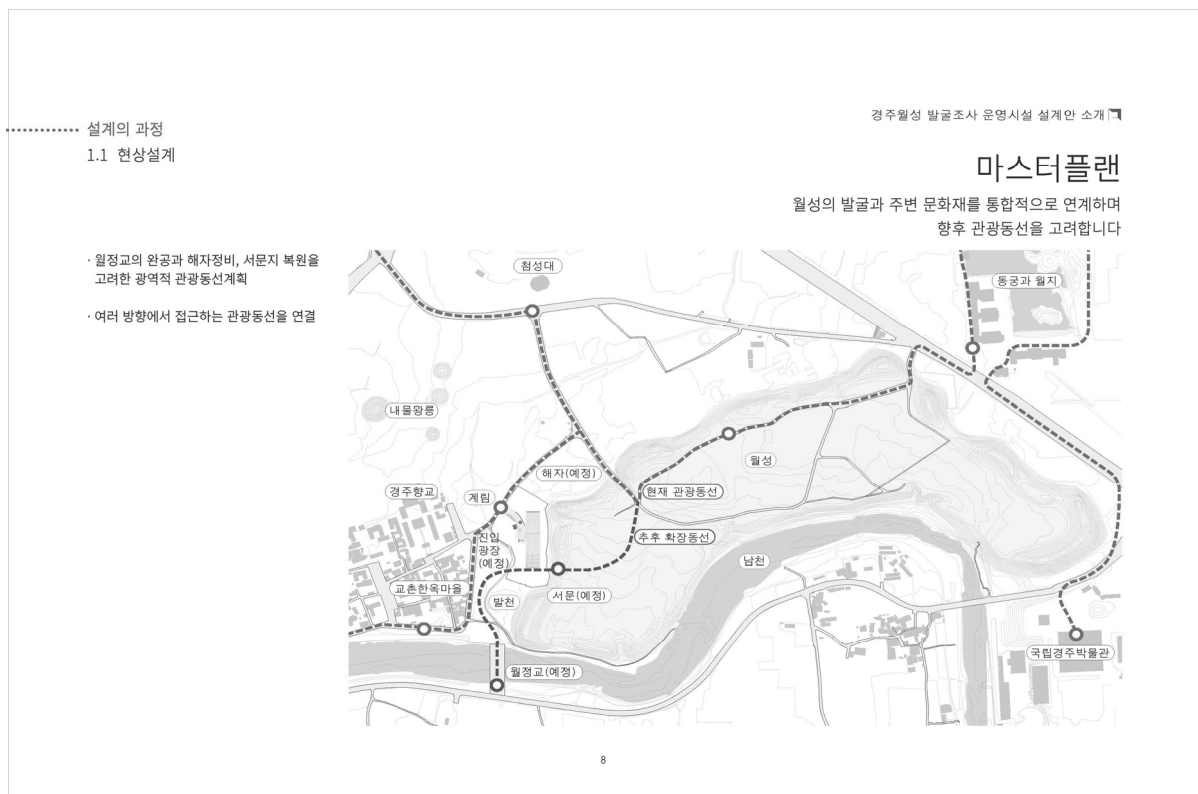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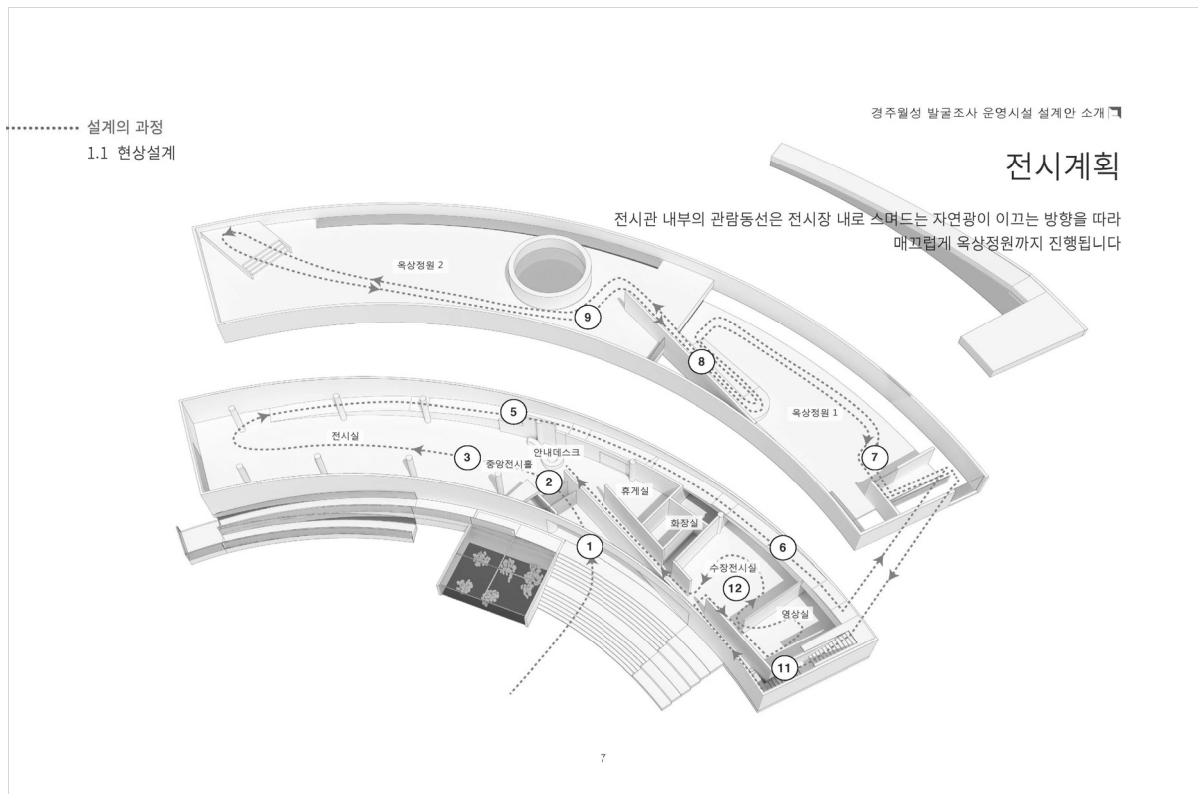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월성의 역사경관과 소통하는 배치



4





..... 설계의 과정

1.2 설계의 과정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착수	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90일)	검토 및 보완	납품
	<div>발주처 협의</div> <div>자료 및 현장 조사</div> <div>설계기준, 법규검토</div> <div>측량 및 지질조사</div>	<div>건축계획안 확정</div> <div>분야별 시스템 확정</div> <div>개략 공사비 산정</div> <div>자재선정 검토</div>	<div>분야별 실시설계</div> <div>설계도서, 공정계획</div> <div>실시설계 공사비 확정</div> <div>건축인허가 진행</div>	<div>최종 도서 납품</div> <div>인허가 완료</div> <div>공사 발주 준비</div>	
2016.8 현상설계 당선 2016.9 착수보고회 2016.11 계획설계 자문회의 2016.11 계획설계 보고회·납품		2016.11 중간설계 자문회의 2016.11 중간설계 보고회			

9

9

설계의 과정

1.3 계획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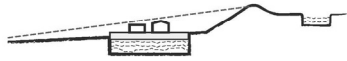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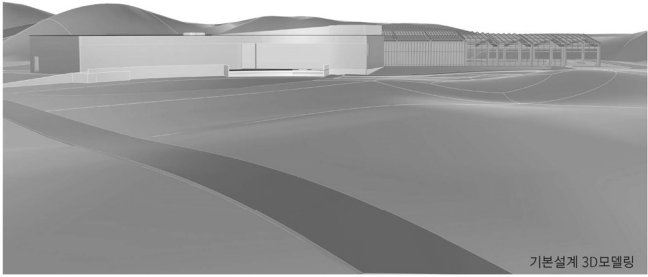
착수보고회 회의내용 및 반영사항

전시동 레벨을 낮추어 전시동 뒤로 수장연구동이 보이게 할 것
대지 하부 유구의 레벨과 보존을 고려하여 건물을 낮추는 방안 검토
교육실과 회의실은 교육·연구실로 합침
영상실을 체험실로 변경
전산실을 경비실로 변경
전시동 입면 재료 검토
목재 루버 부식 방지 방안과 루버 디테일 검토
구조 및 기초 검토
식당 설비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만 사용하는 것으로 적용
화장실은 오폐수 처리하여 하천으로 내보내는 방안 검토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건물의 높이

하부 유구의 위치와 월성의 경관을 고려한 높이 계획
 대지 성토 후 하부 유구 보호에 유리한 매트기초 계획
 기반보강공법 구조설계

기본설계 3D모델링

10

설계의 과정

1.4 중간설계

계획설계 자문회의 내용 및 반영사항

대지 내 수목 위치 확인 후 배치계획에 반영
진입광장부 유구전시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전시동 내부 기둥 위치 재검토
충분한 공용공간 확보 및 각 영역간의 원활한 연결
프로그램에 따른 내부 마감 및 단열계획
전시동 금속판넬은 눈부심이 없고 월성과 조화로운 재료 선정
목재 루버의 철물이 강조되지 않는 디테일 계획 필요
전시동 층고 충분히 확보하고 옥상 조망을 고려한 높이 계획
우수처리 및 외부 바닥재 계획
월성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며 가설건축물의 이미지를 표현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대지내 현황수목 보존을 위한 배치계획

대지내 현황수목 5주를 보존하기 위한 배치계획
배치를 조정하며 진입광장부 유구전시 삭제

중간설계 배치도(현황수목을 고려한 배치 이동)

11

설계의 과정

1.4 중간설계

계획설계 자문회의 내용 및 반영사항

대지 내 수목 위치 확인 후 배치계획에 반영
진입광장부 유구전시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전시동 내부 기둥 위치 재검토
충분한 공용공간 확보 및 각 영역간의 원활한 연결
프로그램에 따른 내부 마감 및 단열계획
전시동 금속판넬은 눈부심이 없고 월성과 조화로운 재료 선정
목재 루버의 철물이 강조되지 않는 디테일 계획 필요
전시동 층고 충분히 확보하고 옥상 조망을 고려한 높이 계획
우수처리 및 외부 바닥재 계획
월성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며 가설건축물의 이미지를 표현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월성과 조화로운 재료 선정

전시동 금속 판넬은 눈부심이 없는 산화스테인레스틸판넬과 징크 선정

산화스테인레스틸판넬 사례사진(레이크힐스)

징크 사례사진

12

설계의 과정
1.4 중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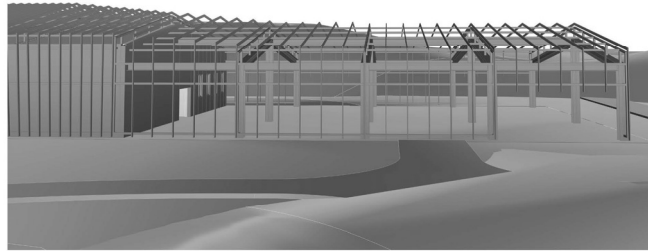
계획설계 자문회의 내용 및 반영사항

대지 내 수목 위치 확인 후 배치계획에 반영
진입광장부 유구전시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전시동 등 내부 기둥 위치 재검토
충분한 공용공간 확보 및 각 영역간의 원활한 연결
프로그램에 따른 내부 마감 및 단열계획
전시동 금속판넬은 눈부심이 없고 질감과 조화로운 재료 선정
목재 루버의 철물이 강조되지 않는 디테일 계획 필요
전시동 층고 충분히 확보하고 옥상 조망을 고려한 높이 계획
우수처리 및 외부 바닥재 계획
월성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며 가설건축물의 이미지를 표현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가설건축물의 이미지 표현

철골조를 노출시키고 건물과 대지를 이격시켜
가설건축물의 이미지 구현



유물 아적장 노출된 철골조와 목재 루버

13

계획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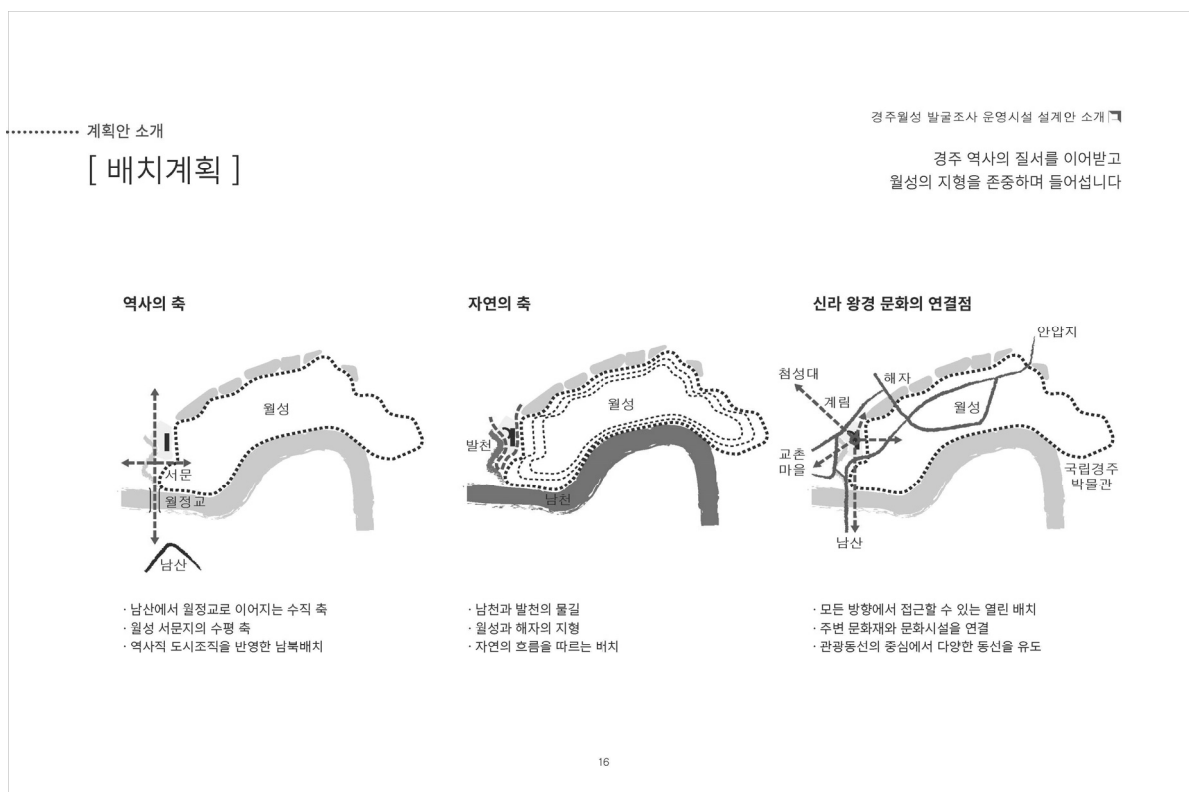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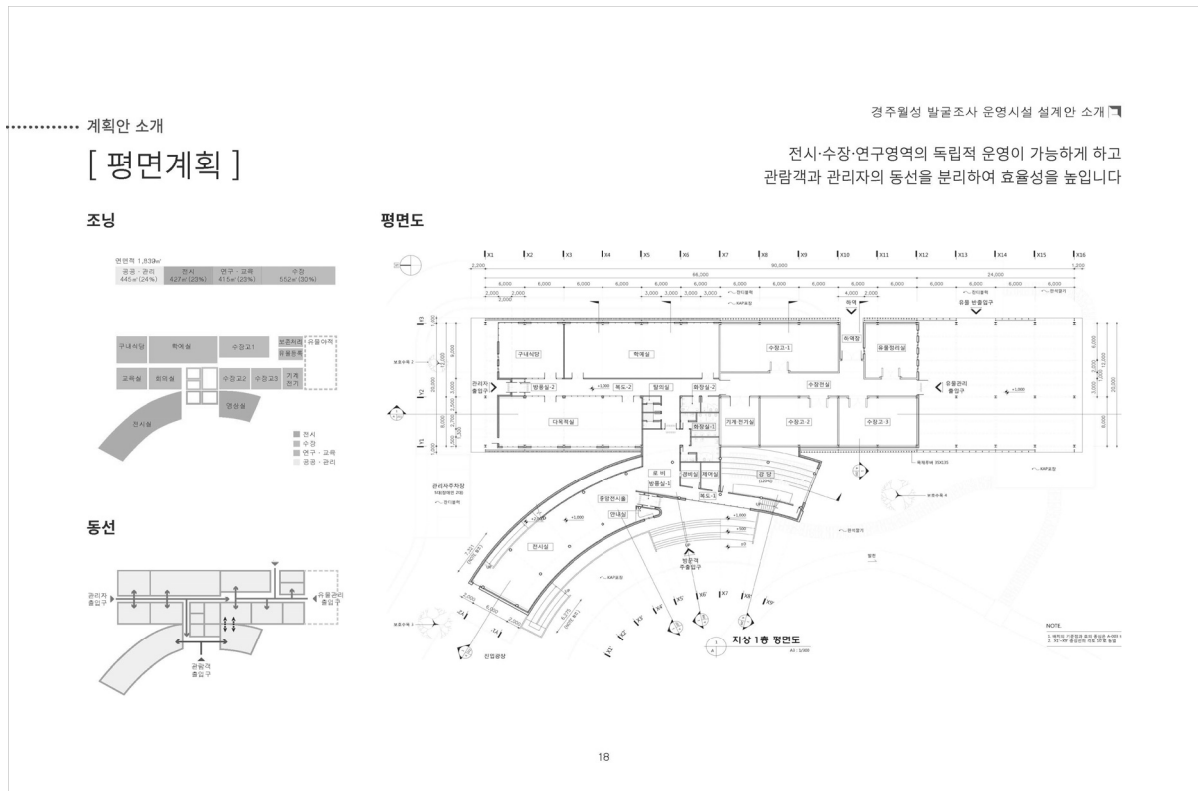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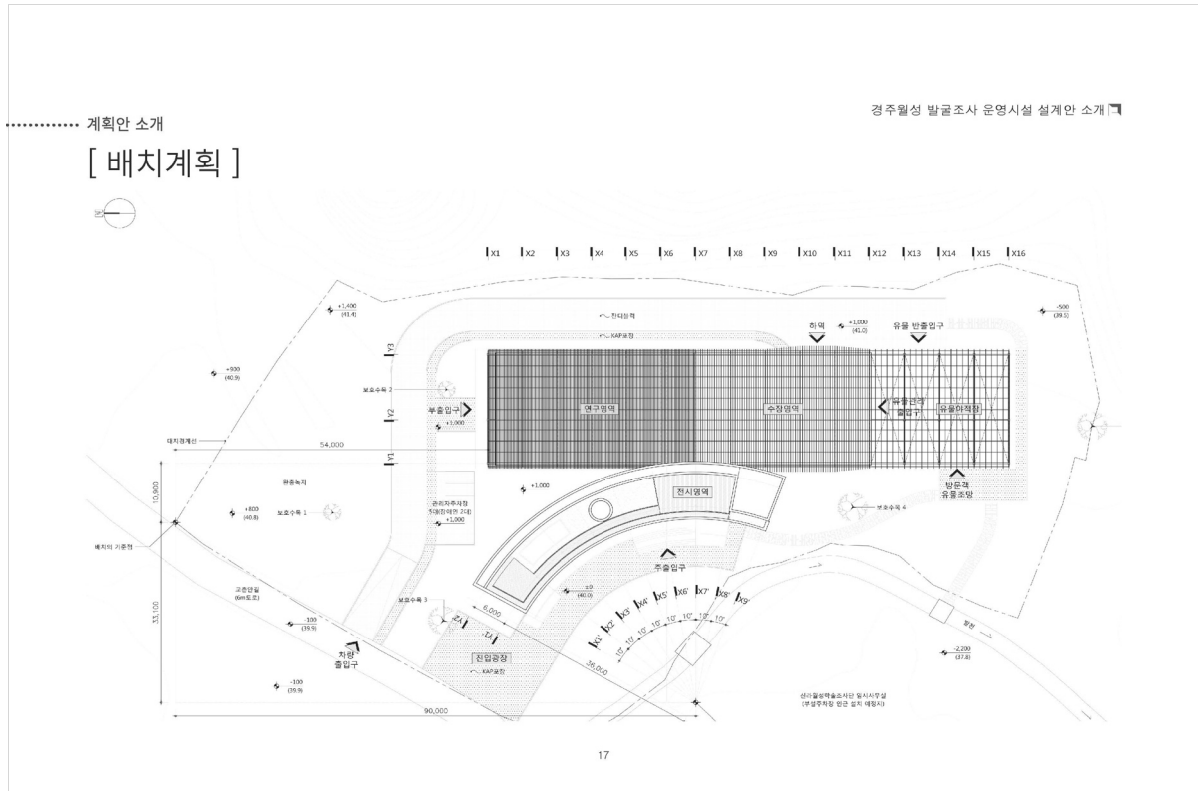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고동 28-1번지외 13	
지역지구	보전녹지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국계법」
	가족사육제한구역	「가족보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용 도	유역지(월성)	「문화재보호법」
	가설건물화장	
	대지면적 9,127.10㎡ (2,760.94py)	
도로현황	교촌단길(서측, 6m)	
층 수	지상 1층	
최고높이	9.23m	대지 중측 월성 높이 약 13m
건축면적	법 정 1,825.42㎡	9,127.10×0.2=1,825.42㎡
	계 획 1,814.78㎡ (548.97py)	
	법 정 5,476.26㎡	9,127.10×0.6=5,476.26㎡
연 면 적	계 획 1,814.78㎡ (548.97py)	
	법 정 대지면적의 20% 이하	
	계 획 19.88%	
건 폐 율	법 정 대지면적의 60% 이하	
	계 획 19.88%	
용 적 율	법 정 19.88%	
	계 획 19.88%	
주 조	철골조	
외부주요마감	신화스테인레스스틸, 징크, 스틱코블럭스, 목재루버, 코이백송유리	
주차대수	법 정 18대	시설면적 100㎡당 1대 (1,813.65/100=18.33=18대)
	계 획 5대(당역인주자 2대 포함)	* 주후 임시사무실 공간 활용 예정

영 역	실 명	면 적		소 계		비 율(%)
		㎡	py	㎡	py	
전 시	중앙전시동	68.90	20.84			
	전시실	204.20	61.77	273.10	82.61	15.05
	강당	117.43	35.52			
교육·연구	다목적실	176.00	53.24	509.43	154.10	28.07
	학예실	216.00	65.34			
	수강고-1	144.00	43.56			
수 장	수강고-2	96.00	29.04			
	수강고-3	96.00	29.04	552.00	166.98	30.42
	유물정리실	72.00	21.78			
	수강전실	120.00	36.30			
	학예전실	24.00	7.26			
	구내시당	90.00	27.22			
관 리	경비실	12.60	3.81			
	계무실	14.04	4.25	170.49	51.58	9.39
	기계·전기실	48.00	14.52			
	안내실	5.85	1.77			
	로비	81.68	24.71			
공 용	방충실-1	4.80	1.45			
	방충실-2	6.00	1.82			
	복도-1	36.68	11.09	309.76	93.70	17.07
	복도-2	105.60	31.94			
	화장실-1	44.40	13.43			
	화장실-2	15.00	4.54			
	탈의실	15.60	4.72			
	합 계(㎡)			1,814.78	548.9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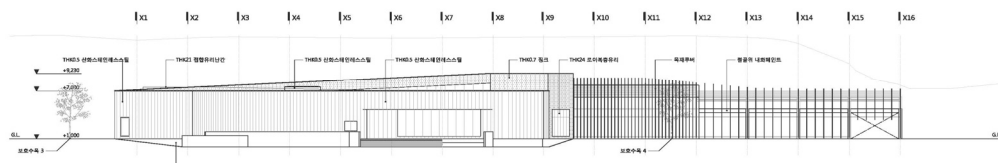
14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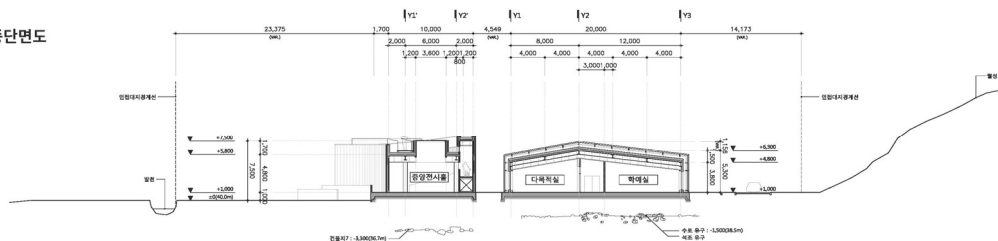
정면도



19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종단면도



20

..... 계획안 소개

[외부공간계획]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

주출입로에서 바라본 정면 전경
진입광장과 전시관,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연구동과 월성



21

..... 계획안 소개

[외부공간계획]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

옥상정원 전경
주변의 조망가능한 문화재들을 바라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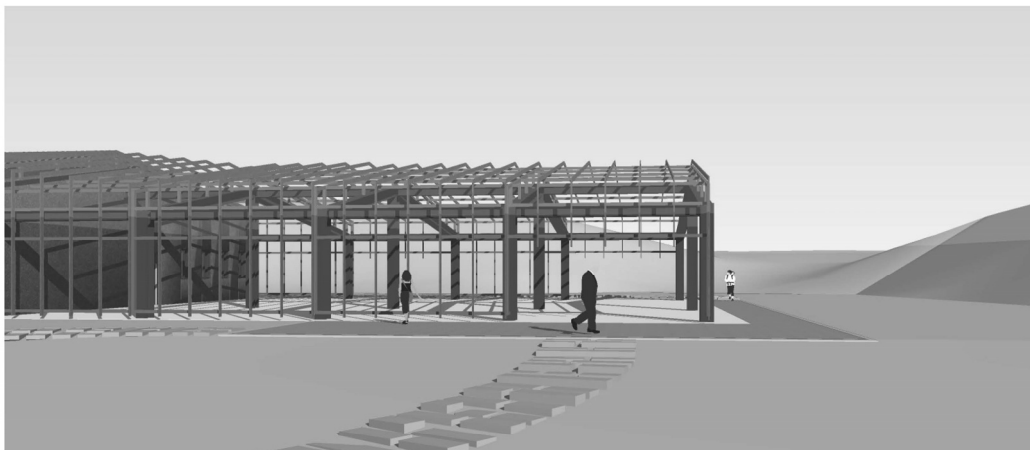
22

..... 계획안 소개

[외부공간계획]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유물야적장은 발굴유물들을 임시 보관, 정리하는 곳으로
방문객들의 유물 조망이 가능하며 월성 서문지에서의 접근을 고려하였다



23

..... 계획안 소개

[외부공간계획]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월성의 서문과 연결되는 수장동의 야외공간은
유물 보존관리를 전시하고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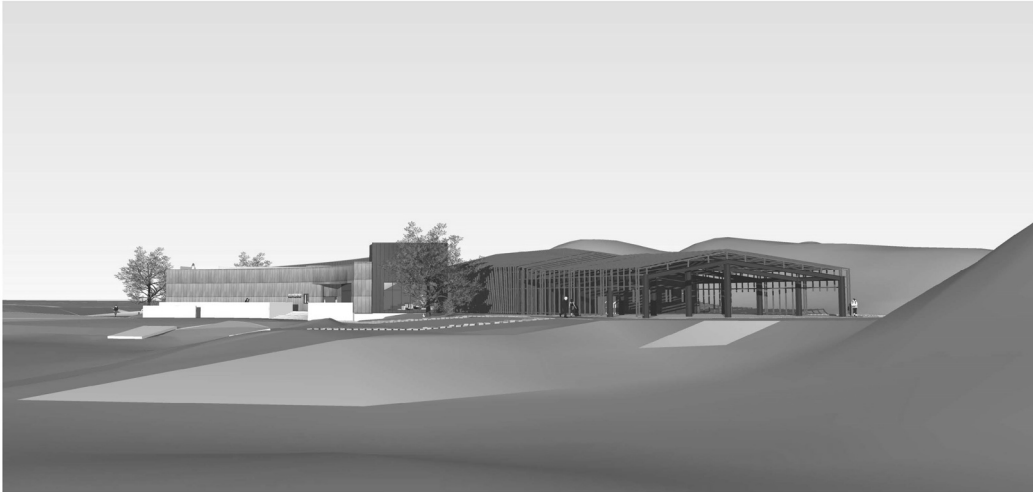
24

..... 계획안 소개

[외부공간계획]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월정교 진입로에서 바라본 우측면 전경
월성의 능선과 조화로운 루버 높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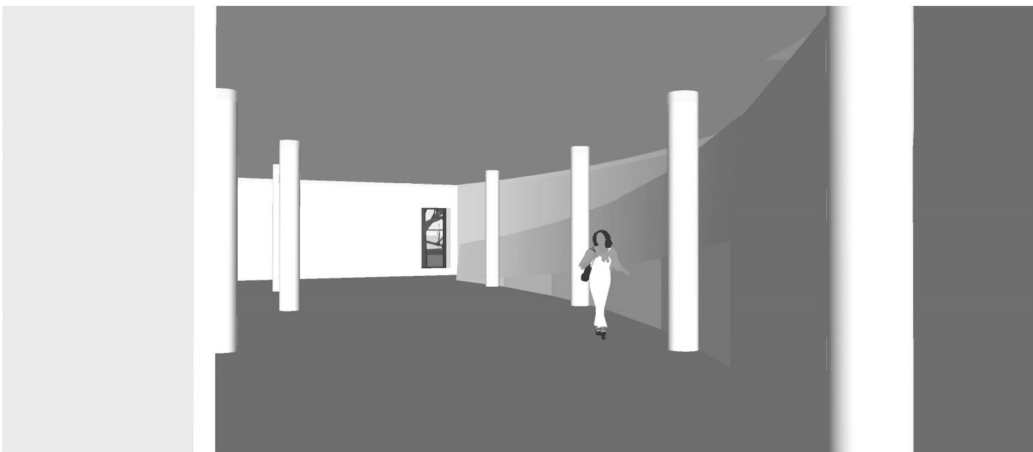
25

..... 계획안 소개

[내부공간계획]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중앙전시홀에서 바라본 전시실
전시를 모두 감상한 후 천창의 빛을 가진 램프를 오르면 옥상정원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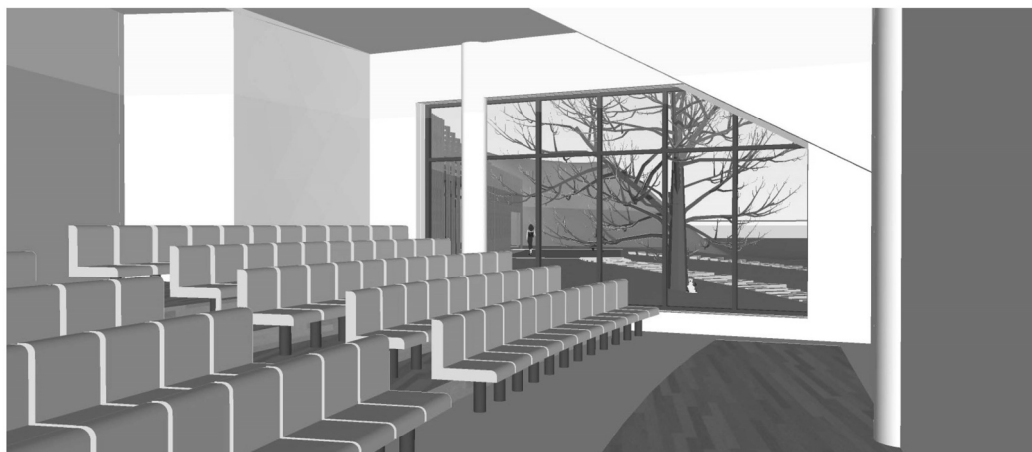
26

..... 계획안 소개

[내부공간계획]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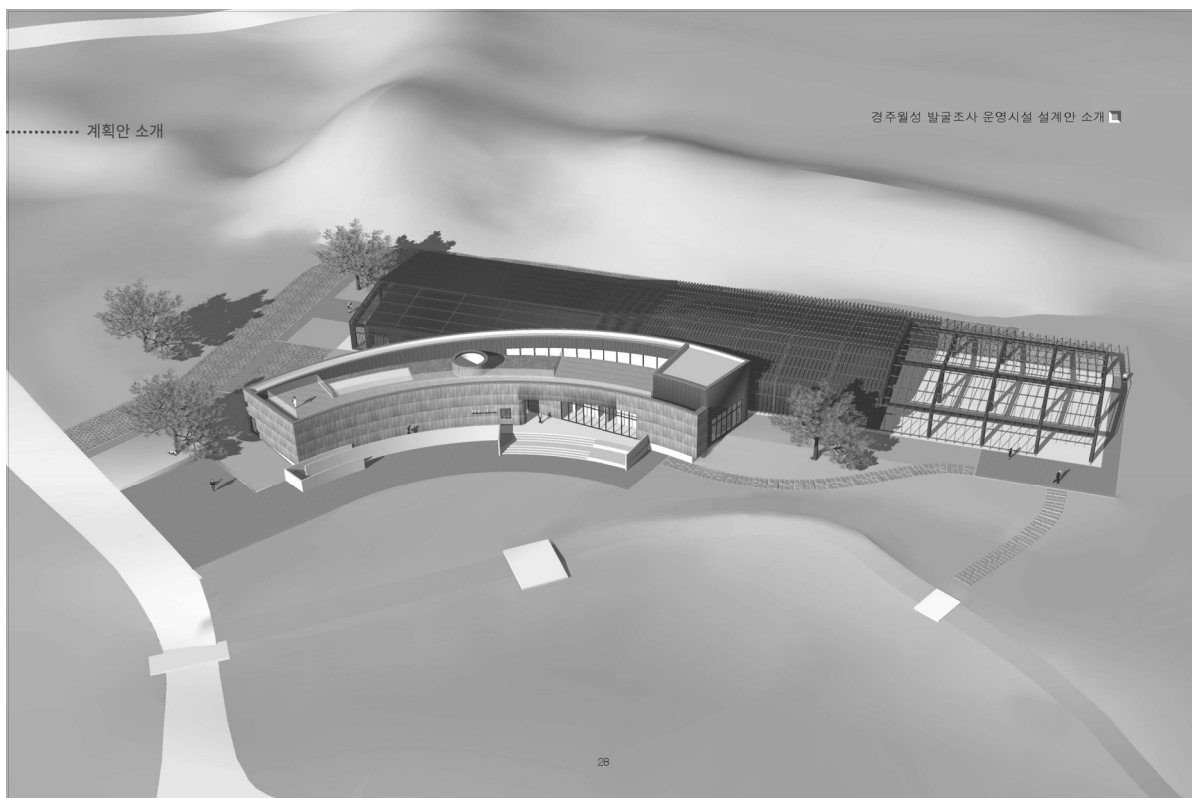
계단식 강당
교육과 행사를 위한 공간이다



27

..... 계획안 소개

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



28